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철저히 무장하자!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농기계강선

3

주체107(2018)
루게 제343호 월간

자력갱생 기치높이 다시한번 대고조로

좀 빠르고 힘차게

작사 김경기
작곡 리용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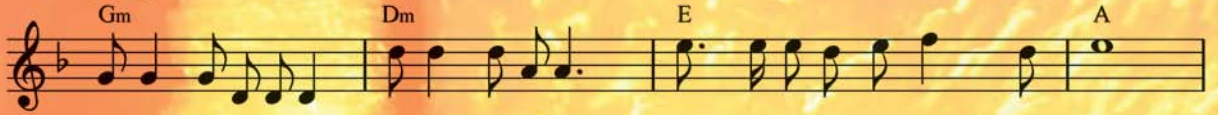


1. 락 - 원의정신 강 - 선의기백 온 나라에차넘친다



수령님의요구 당의요구라면 무엇이든 - 우리한다

(후렴)



에야 차데야차 에야 차라차 자력갱생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다시한번 - 대고조로

2. 사람마다 똬다 일터마다 똬다
혁신으로 들끓는다
모든 예비 찾아 제손으로 찾아
새 기적을 펼쳐간다
(후렴)

3. 기대마다 돈다 만부하로 돈다
자립경제 은을 낸다
주체조국 위력 사회주의위력
제힘으로 펼쳐간다
(후렴)

생산되고있는 새형의 트랙토르들

전후 맨주먹으로 첫 《천리마》호트랙토르를 만들어낸 금성트랙토르공장의 로동계급이 오늘 또다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새형의 트랙토르를 수많은 생산해내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본사기자 임정국



차 례

- 자력갱생은 조선의 전통 -

자력갱생, 오직 한길로	3
일 화	
자기 힘을 믿으라	6
밀린속의 병기참	8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다	9
우리가 만난 사람들	10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1930년 여름	11
오늘도 그 길을 따라	13

- 공화국의 70년 -

세계를 놀래운 전승신화	14
변함없이 가야할 길	15
민족자유의 리념을 지니시고	16
수 필	
모 른 다	17

- 신년사파업관철을 위하여 -

화물자동차생산에서 혁신을	18
새 제품개발사업이 추진된다	22
숲을 가꾸어가는 녀성들	24
아동들의 심리를 파고들어	26
혈육의 심정으로	28
건강, 젊음, 미려를 담보합니다	29



22



물도 마음도 쑥쑥 30
 탁구선수후비들로 준비해간다 32
 참관기
 미술의 어찌와 오늘을 보며 (3) 34
 고향소식
 래일을 향해 약속하는 고장 38

조국의 품에 안겨

한 여성의학자가 걸어온 길 40

편지

보고싶은 동생에게 42
 려명거리를 보며 43

인상기

아름다운 조국 44
 우리의 고향 44
 애국의 한길에서 45
 고려의 풍속 46

사화

제 눈을 스스로 찢어버린 화가 47

력사인물

노래 《봉선화》와 흥간파 48

민족의 향기

총각김치 49
 조국의 천면기념물 (14) 50

야화

어린 재판관 50
 평안북도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4) 52
 평화적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53
 파멸을 불러오는 무력증강 54
 드러난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의 내막 55
 오늘도 울려오는 함성소리 56



상식

중세 말기 이름난 수공업 및 상업도시 32
 증병을 알리는 가벼운 증세 몇가지 41
 섹에 대한 정서 48
 조선속담 (홍보기) 46

유모아

다른 사팠을 위해 56

자력갱생, 오직 한길로



새형의 대륙간탄도 로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는 조국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인민들 누구나가 입버릇처럼 외우는 말이 있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자력갱생, 이 말은 비단 어제 오늘에 생겨난것이 아니다.

혁명의 닳을 올린 때로부터 수십성상 조국인민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고난과 시련의 언덕들을 무수히 넘어왔다.

자력갱생은 조선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원동력이다.

전 통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진리를 밝힌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을 그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항일무장투쟁이 바로 그러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 간도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수류탄공장을 지어달라는 청원을 하였다. 그들은 수류탄공장만 있으면 조선혁명이 3~4년안으로 승리할수 있으리라는 허망한 기대를 가지고있었다. 그리



천리마대고조시기 자력갱생의 힘으로 수많은 기계설비들을 만들어내었다.

나 그 청원에 상대측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리석게도 남의 나라에 도움을 요청한 이 사건을 혁명대오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확립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삼으시고 적들의 손에서 무기를 빼앗아내는 한편 자체로 병기창을 꾸려 무장을 해결하도록 하시였다.

밀림속의 병기창, 이 말과 더불어 맨손으로 무기를 만들어내던 그날의 항일혁명투사들

의 강인한 모습이 뜨겁게 어려온다.

그때 도구라는것이 기껏해서 망치와 줄칼, 풍구정도였다. 하지만 항일혁명투사들은 자체의 힘과 지혜로 권총과 보총, 탄약은 물론 여기에 필요한 화약까지도 만들었다.

자력갱생의 산아인 연길폭탄도 여기에서 태어났다.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던 그 정신은 그대로 자력갱생의 전통이였고 이것은 항일대전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왔다.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자력갱생의 힘으로 빈터우에 건국의 첫삽을 박았고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도 할수 있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때려부시였으며 그 힘으로 폐허우에서 전후복구건설을 시작하였다.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조국은 기성의 리론과 방식을 뒤집어엎고 자기의 힘과 기술

로 공작기계를 비롯한 기계설비들과 자동차, 트랙터, 불도젤, 굴착기,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자립적민족경제를 튼튼히 다져왔다.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제재와 봉쇄책동속에서 남들같은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련의 시기에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높이 발휘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서는 민족이 대국상을 당하고 시련에 시련이 겹쌓이던 그때,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패재를 올리며 공화국의 용광로와 발전소, 기계설비들이 그대로 녹슬기만을 바라면서 그 무슨 변화를 운운할 때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조국을 강대한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우뚝 올려 세워주시였다.

이 땅에 태어난 시대어들이 그 만단사연을 다 말해주고있다.

CNC기계, 주체비료, 주체비날론, 새 세기 산업혁명...

위대한 수령님들에 의해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조선혁명의 력사는 이렇게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것을 자기의 력사우에 뚜렷이 아로새겨놓았다.

원동력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원동력인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최근년간 더더욱 높이 발휘되어 경제와 국방 등 여러 부문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과학기술전당, 자연박물관,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를 비롯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구쳐올랐는가 하면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경쾌하게 달린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나사못까지도 우리의것으로 만든 인공지구위성이 련속 우주에 떠올랐고 전략잠수함에서 발사된 탄도탄이 바다수면을 뚫고 창공으로 날아올랐으며 첫 수소탄까지 태어났다. 그리고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의 성공으로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켓강국위업이 실현되었다.

듣기만 해도 가슴뿌듯한 이 성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품을 들이시고 정과 열을 기울이시여 창조와 건설의 능수들로 역세계 키워주신 군대와 인민을 자력갱생의 강자들로 더욱 훌륭히 내세우시기 위하여 끝없는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올해 신년사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비

주체섬유 비날론의 생산 주체99(2010)년 촬영



CNC공작기계들 주체100(2011)년 촬영



지하전동차 주체104(2015)년 촬영



못하여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며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사회주의강국건설로 들끓는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시여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으며 우리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개발하고 만들어낸것이라면 자그마한 생활용품이든 큼직한 중공업설비이든 그리도 소중한 여기시며 그 이름을 거듭 거듭 외우시고 온 세상에 내세워주시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가시여서는 새로 꾸린 가방용천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며 현대적이며 주체화된 가방용천생산기지를 꾸려놓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며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었고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 가시여서는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제작한 아크릴계철감생산공정을 보시며 오늘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으며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자기 힘을 믿으면 만리도 지척이고 남의 힘을 믿으면 지척도 만리라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야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으며 우리 혁명이 힘차게 전진할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신 그이이시었다.

그이의 믿음에 고무된 조국인민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여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우는 놀라운 기적

을 창조하였다.

지금도 사람들은 두해전에 원산군민발전소를 일떠세우던 때를 잊지 못한다. 서해로 흐르는 강물을 동해로 돌려 락차고를 조성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규모가 큰 류역변경식수력발전소건설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강원도인민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지만 그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수십km의 물길굴뚝기와 200여만m³의 언제쌓기 등을 자체의 힘으로 완공하였다.

조건이 좋거나 하늘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었다.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압박은 더욱더 로골화되었고 공화국을 겨냥한 전쟁연습도 해마다 끊이지 않고 진행되었다.

몽유병환자와 같은 트럼프는 날로 발전하는 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절멸》을 떠들어댔다.

하지만 그럴수록 조국에는 자력갱생의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으며 이 땅에는 자력자강의 알찬 열매들이 주렁졌다.

이렇듯 현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야말로 우리의 전통이고 힘이며 승리의 원천이라는것을 웅변으로 증명해주었다.

어제도 그러하였듯이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 땅우에 세계가 우러러보는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글 본사기자 임향심
사진 조선중앙통신

◇ 일 화 ◇

자력갱생은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조국이 걸어온 성스러운 력사속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가슴속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심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업적이 깊이 새겨져있다.

신념을 안겨준
대동강반의 불빛

우리 조국건설사에 자력갱생의 《촉수높은 신호등》으로 새겨진 대동강반의 불빛에 대한 이야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인민의 가슴속에 민족자력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더욱 깊이 심어주신 사실로 오늘도 뜨겁게 전해지고있다.

주체42(1953)년 7월 28일 조국해방전쟁승리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를 마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동강기슭에 위치한 어느 한 벽돌공장을 찾으시었다.

그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여기에 환히 불을 밝히자고, 대낮처럼 불을 밝히고 일을 하자고 힘있게 교시하시었다.

미제가 이 땅을 폐허로 만들고 조선을 석기시대로 되돌려놓았다고 떠벌이던 전후의 첫 시기 전승광장을 내리시는 길로 공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의 그 교시에는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고 채더미밖에 보이지 않지

자기 힘을 믿으라

만 자체의 힘으로 벽돌을 생산하고있다는것을 인민들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하여 온 나라 인민들이 승리의 신심을 안고 제손으로 전후복구건설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게 하시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었던것이다.

대동강반을 환히 밝힌 불빛.

그 불빛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제힘으로 전쟁에서 이긴것처럼 전후복구건설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해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안겨준 휘황한 불빛이었다.

대중의 심장을
발동시킬 때

주체68(1979)년 12월 어느날 남포시의 한 책임일군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일군을 만나 담화를 나누시던 그이께서는 큰 규모의 대상들을 건설하고있는 남포시에서 애로되고있는 설비와 자재문제를 자체로 해결해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에게 남포시야 큰 공장도 많이 가지고있는데 다른것은 몰라도 기중기나 혼합기 같은거야 자체로 만들수 있지 않다고 물으시었다.

해결방도가 잘 나서지 않는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공장들에 나가 로

동자동무들과 의논해보았는가고 또다시 물으시었다.

일군은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6만t능력의 압연기에서 12만t의 강재를 뽑아내어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린 강선의 로동계급을 가지고있는 남포시가 아닌가, 그런데 이런것도 해결하지 못하여 우에다 손을 내민다는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서운한 어조로 뇌이시었다.

대중의 힘을 믿고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한 심한 자책감으로 하여 일군은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그를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6만t능력의 압연기에서 12만t의 강재를 뽑아낸 우리 로동계급의 그 심장의 크기를 불줄 알아야 하며 그 심장을 발동시켜 돌파구를 뚫고 나갈줄 알아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었다.

이처럼 그이께서는 대중의 힘을 발동하여 부족되는 설비와 자재들도 자체로 해결하도록 하시여 자력갱생의 위력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누구나 절감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현대화의 기준

몇해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어느 한 공장을 돌아보실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든 생산공정들의 자동화, 무인화, 무균화, 무진화가 훌륭히 실현된 공장을 기쁨속에 돌아보시었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현대화를 실현한 공장의 성과를 두고 그이께서는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그날 현대화의 기준에 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이 바라는 현대화란 남의 힘과 기술을 도입한 현대화, 다른 나라 설비들을 그대로 가져다놓은 현대화가 아니라 우리의 주체적인 역량과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현대화이다. ...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인민의 마음속에 억척으로 심어주신 애국의 신념, 자력갱생의 정신이 돌이켜져 일군들의 격정은 컸다.

설비를 사다가 생산공정을 조립하는것은 현대화가 아니다. 우리의 현대화는 철저히 우리 로력과 기술로 생산설비들을 개발하고 새로 만들어내는것이다.

새로운 창조와 비약의 나래를 펼쳐주신 그이를 우러르는 모두의 가슴마다에 현대화의 기준, 우리 식의 참의미가 깊이 새겨졌다.

* *

자력갱생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은 조국인민들은 오늘도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솔미

밀림속의 병기창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있는 일이었다. 유격근거지의 어떤 사람들은 수류탄공장을 하나 지을것을 계획하고 다른 나라에 도와줄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나라에서는 수류탄 공장청원에 아무런 회답도 보내주지 않았다. 청원을 해결해주겠다는 약속도 없었고 해결해주지 못하겠거나 해결할수 없다는 통지도 없었다.

일부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자기의 힘을 믿지 않고 다른 나라를 쳐다보고만 있을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인민의 힘을 최대한 발동할 확고한 립장을 지니시고 병기창을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도록 하시였다.

당시 유격대의 병기창들에는 기계나 공구가 거의 없었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쇠붙이를 다루어본 경험은 물론 무기수리 같은것을 해본적조차도 한번 없었다.

하지만 항일혁명투사들은 모루, 망치, 집게, 메, 풍구, 줄칼, 착공기 등의 철공도구들을 하나하나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병기창을 꾸려나갔다. 투사들은 줄칼로 쓸고 숯돌로 갈고 망치로 두드리고 불과 물과 진흙에 담금질을 하는 방법으로 보총의 약통물개도 고치고 격침도 수리하였다. 나중에는 못쓰게 된 기관총까지도 고치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파손

된 무기들을 수리재생하거나 새로운 무기들을 생산하여 유격대와 반군사조직들을 무장시켜나갔고 일제를 쓸어놓혔다.

그뿐이 아니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화약도 자체로 만들었다. 그들은 외양간, 마구간 등의 두엄더미밑바닥 흙에서 화약의 기본원료인 염초를 얻어내어 연길폭탄이라는 위력한 작탄을 만들어내었다.

화약의 개발은 병기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작탄은 수류탄과는 대비도 할수 없으리만큼 대단한 살상력을 가지고있었다. 일본군경들은 빨찌산의 작탄이라면 벌벌 떨었다.

자력갱생은 소소한 무기나 수리제작하던 병기창에서 연길폭탄이라는 작탄까지 만들어내게 하였다.

본사기자 변진혁



항일무장투쟁시기 자체로 제작한 연길폭탄들(우), 무기를 수리제작하던 무기수리소(모형)와 자체로 만들어 사용한 나무포(왼쪽)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다

나는 이번에 새형의 트랙포트를 생산하는 과정에 모든것이 부족하고 난관이 겹쌓일수록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 나갈 때 점령 못할 요새란 없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두해전 5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산물로 생산한 우리 식의 80hp트랙포트 《천리마-804》호를 보시고 본격적인 생산에 진입할때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새형의 트랙포트생산은 엄혹한 시련과 난관속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였다.

당시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적대세력의 제재와 군사적위협은 극도에 달하였고 트랙포트 생산에서 부족되는것은 한두가지가 아니였으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학기술적문제들도 많았다.

하지만 우리는 팔짱을 끼고 앉아서 기다린것이 아니라 있는 자재와 로력, 자기의 힘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으며 트랙포트 생산을 기한전에 끝내기 위해 때로는 수백℃나 되는 로속에 뛰어들어 결사전도 벌리였다.

그 나날 우리 공장 종업원들의 심장속에 깊이 자리잡은것은 전후 것처럼 어려웠던 시기 맨주먹으로 트랙포트를 만들어낸 그 정신, 그 기백이였다. 그 억척의 신념이 있었기에 우리는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뚫고나가며 자력갱생의 마치 소리를 더 높이 울리였다.

돌이켜보면 우리 공장은 1950년대 전후복구건설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를

받들고 농쟁기나 만들던 락후한 설비를 가지고도 자력갱생, 바로 이 힘으로 첫 트랙포트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창조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있다.

그때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에 빠진 일부 사람들은 큰 나라들에서도 만들지 못하는 트랙포트를 기계공업의 력사도 없는 자그마한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만들겠는가고 허튼 나발을 불어댔으며 여기에다 종파분자들까지 온갖 방해책동을 다하였다. 그러나 우리 공장 로동계급은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선반기를 돌리면서 기어이 첫 《천리마》호 트랙포트를 만들어내고야말았다.

1950년대로동계급이 발휘한 자력갱생의 전통은 오늘에도 이어져 공장로동계급은 마침내 조선로동당의 의도대로 수많은 새형의 트랙포트를 정해진 기간에 훌륭히 생산할수 있었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 11월 우리 공장을 찾아주시여 국산화비율을 98.7%수준에서 보장하였는데 만리마시대에 태어난 조선의 트랙포트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고의 목표를 내세우고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고야마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 낳은 고귀한 창조물이라고 공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만든 새형의 트랙포트는 단순한 룬진기재가 아니라 적대세력들의 봉쇄의 쇠사슬을 무자비하게 끊고 경제강국의 지름길을 힘차게 열어제끼는 자력자강의 무쇠철마이라고, 공장로동계급은 우리의 앞



길을 가로막아보려고 미쳐날뛰는 적들에게 호된 강타를 안겼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트랙포트를 생산하고있지만 지구상의 그 어디에도 자력갱생이라는 위대한 사상을 원천으로 하여 만들어낸 트랙포트는 없을것이다.

지금도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우리의 사회주의를 고립질식시키려고 정치군사적압력과 함께 경제봉쇄를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고있다. 적들이 백년이고 천년이고 《최대의 압박》과 《철저한 차단》을 떠들어대도 조금도 두렵지 않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력갱생이라는 위력한 무기가 있기때문이다.

정녕 자력갱생의 길만이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 길이며 우리에게는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나는 앞으로도 우리의 멋, 우리의 지혜, 우리의 식이 살아숨쉬는 새형의 트랙포트가 사회주의대지를 뒤덮을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겠다.

금성트랙포트공장 지배인 지동식

우리가 만난 사람들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전당에서는 제28차 전국 정보기술성과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전시회장을 짝 채운 우리 식의 정보기술성과자료들은 정보산업, 프로그램산업의 신비한 세계로 사람들을 이끌어갔다.

우리는 그곳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맨 앞장에서 첨단을 돌파해가는 미더운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났다.

아래에 그들을 소개한다.

연구사업의 기준

전시회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특별히 끈것은 지능유희모래사판이다.

어린이들의 지능개발과 폭넓은 자연지리상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능유희모래사판은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 정보기술연구소 소장 박사 박두호를 비롯한 연구사들이 제작완성한것이다.

깊이화상검출카메라, 투영기, 컴퓨터, 모래함통, 완구모래로 구성되어있는 사판은 유희자가 모래함통안에 쌓인 모래를 파내거나 손다치기, 손퍼기동작과 같은 조작으로 《모래놀이》를 진행할 때 현실감이 나는 그림을 현시하면서 유희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증강현실체험형유희기구이다.

연구소에서는 지능유희모래사판과 유희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제기되자 즉시 개발조를 조직하고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연구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들이 기준으로 삼은것은 모든것을 우리의것으로 하는것이였다. 그들은 고심어린 사색과 탐구로 11개의 유희프로그램들을 우리 식으로 새롭게 개발완성하였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련관단위 연구사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우리 나라에 무진장하게 매장되어있는



박두호

고회석을 주성분원료로 하여 위생성이 보장되면서도 손에 묻어나지 않는 완구모래를 새로 제작하였다.

지능유희모래사판은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지능형유희프로그램들로 새롭게 개발한것으로 하여 전국의 모든 유치원어린이들과 소학교, 초급중학교 학생들의 자연에 대한 인식,

과외교양활동에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되었다.

전시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지능유희모래사판은 과학기술전당 어린이꿈판에도 전시되어 어린이들의 지능교육에 널리 리용되고있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과학기술자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많은 자료들이 전자문서로 보급되고있으며 컴퓨터망에 의한 자료교류가 활발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언어장벽을 해소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이 언어장벽을 해소하는 도구가 바로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다국어 기계번역체계 《부흥》이다.

연구소에서는 이미 개발한 기계번역체계를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릴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실장 박사 김동권은 개별적성원들의 자질과 기술적특성에 맞게 과제를 분담하고 빠른 시일안에 최상의 성과를 거둘수 있는 방도들을 모색해나갔다.

어느 한개의 어문도 아니고 여러 나라의 어문을 더 정확히, 더 빨리 번역할수 있는 체계를 개발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연구사들인 오명일, 리민혁, 정철민, 리광은 기계번역부분에 대한 최신문헌들을 수집연구하고 집체적도의를 거듭하면서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나갔다.

마침내 그들은 규칙에 기초한 방법과 통계에 기초한 방법을 결합함으로써 영조, 중조, 로조, 일조기계번역프로그램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다 국어 기계 번역 체계 《부흥》은 제28차 전국정보기술성과전시회 기계번역경연에서 1등을 쟁취하였다.

그들이 개발한 기계번역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전당과 인민대학습당의 독자번역봉사체계에 도입되어 사용자들이 컴퓨터망을 통하여 과학기술 자료들을 번역, 탐독하는데 리용되고있다.

지금 그들은 이룩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계속 갱신해나가고있다.



김동권

본사기자 변진혁

1930년 여름

(전호에서 계속)

도리의 상점과 식당들에는 기름진 음식들이 많았으나 우리한테는 그것이 다 그림의 떡이었다.

국제당에서는 하루용돈으로 15전을 주었는데 할빈생활이라는것이 15전을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었다. 보통려관에 들면 숙박검열이 심하여 혁명가들이 배겨있을수 없었다. 경관들이 드나들지도 않고 숙박계도 내지 않는 려관이란 백계로씨야인들이 경영하는 려관밖에 없었다. 이 려관에서는 식비와 숙박비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돈 많은 자본가들이나 들었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명함을 들이대기도 어려운 호화려관이였다. 나는 여러가지로 타산하던 끝에 하루 한끼씩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한 고급려관에 들기로 하고 녀성들에 대한 단속을 벌반 하지 않는 일반려관에 한영애를 들게 하였다.

려관에 들고보니 그 내부가 이만저만 요란하지 않았다. 려관에는 상점, 식당, 오락장, 만스홀 같은 시설은 물론, 영화관까지 있었다.

나는 돈도 없이 이 려관에 거처를 정했다가 딱한 경우를 여러번 당하였다. 내가 첫날 려관에 들어갔을 때 로씨야안내원녀자가 따라들어와서 손톱을 깎아 주겠다고 하였다. 손톱을 깎으면 돈을 물어주어야 하겠으므로 나는 다 깎았다고 하였다. 안내

원이 나가자 이번에는 접대원이 꼬리를 물고 따라들어와서 어떤 음식을 청하겠는가고 물었다. 궁색한대로 또 동무의 집에서 먹고 왔다고 대답하는수밖에 없었다.

이런 단련을 날마다 받으면 서도 돈이 없는탓으로 려관에서는 식사를 한번도 하지 않고 자기만 하였다. 식사는 하루일을 다 보고 저녁에 한영애와 함께 거리에 나가 녹거리강낭지 집을 한두점 사먹는것으로 굶매였다.

언제인가 우리 나라에 온 류소기를 만나 그 사연을 이야기했더니 그는 자기도 그해에 할빈에 있던적이 있었다고 하였다. 당원들중에 중국사람은 없고 조선공산당원 몇사람을 데리고있었는데 그때 내가 국제당에 관계하지 않았는가고 하였다. 시기를 따져보면 류소기가 할빈에서 활동하다가 돌아간 직후에 내가 거기에 가서 국제당 일군들을 만난것 같다.

나는 한영애에게 파업을 주어 흩어진 조직성원들을 찾도록 하였다.

한영애는 길림시절부터 련계를 가지고있던 할빈공청지부의 한 아무개라는 사람과 련계를 가지고 그를 통하여 지하에 숨어있는 조직성원들을 한명두명 찾아내어 카툰회의방침을 해설하였다.

나도 김혁이 공작하던 철도와 항만에 들어가서 혁명조직의 영향밑에 있는 로동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할빈에서 지하조직들을 수습하고 동지들 사이에 서로 련계를 지어준 다음 한영애를 그곳에 남겨두고 혼자서 돈화로 나왔다. 분초를 다투는 때여서 한영애하고는 고맙다는 인사도 변변히 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내가 떠날 때 한영애는 함께 따라가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할빈동무들이 자꾸 남겨두고 가라고 해서 그의 소원을 풀어줄수가 없었다. 동만에 나온 후 그것이 늘 속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지만 지하공작규률상 편지련락을 못하게 되어 서로 소식도 모르고 지냈다.

한영애의 그후 운명에 대해서는 당력사연구소동무들이 수집한 자료를 보고 훨씬 후에야 알게 되었다.

내가 돈화로 나올 때 할빈의 혁명조직들에 서한을 남긴것이 있는데 한영애는 그 서한을 통해 내가 할빈동무들에게 준 파업을 실행하느라고 뛰어다니다가 1930년 가을에 경찰에 체포되었다. 어지간한 녀성들 같으면 집이 그리워서라도 교하로 돌아갔겠지만 한영애는 할빈에 그냥 남아서 밤잠도 자지 않고 내가 준 파업을 수행하였다. 말이 적고 양순한 처녀였지만 일단 혁명사업에 들어가면 이악하고 과감하게 활동하였다.

한영애는 불잡히자마자 신의 주감옥으로 끌려가 거기서 수감생활을 하였다. 그것은 리종락, 박차석을 비롯한 《C.C》시절의 연고자들이 무리로 불잡

혀 감옥으로 끌려가던 시기였다. 그래서 그는 리종락이와도 한감옥에 있게 되었다.

그후 리종락이 한영애를 만난 자리에서 《나도 김성주와는 잘 아는 사이이고 너도 김성주의 지도를 받던 여자이니 우리 다같이 힘을 합쳐 그를 귀순시켜보지 않겠는가. 생각이 있으면 우리 <귀순공작대>에 들어오라.》고 하였다.

한영애는 즉석에서 그에게 면박을 주었다. 그는 리종락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 못쓴다, 우리가 김성주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그따위 너절한 배신행위를 하겠는가, 출옥한 다음 혁명을 못하면 말았지 그따위짓은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1938년 겨울 우리가 남파자에서 회의를 할 때 나를 《귀순》시켜보려고 회의장소에 들어왔던 리종락이 이런 사연을 다 고백하였다.

그렇게 되어 나는 그동안 어디서도 들을수 없었던 한영애의 소식을 듣게 되었으며 그가 감옥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혁명가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리종락이나 박차석 같은 사내들은 감옥맛을 보기 바쁘게 다 전향문에 도장을 찍었지만 한영애는 녀성의 몸으로 그 고초를 용감하게 이겨냈다.

《해산사건》이후 도처에서 혁명가들이 무리로 잡혀가고 투쟁의 길을 걷던 사람들 가운데서 배신자들이 생겨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주고있던 때에 그런 소식을 들은것만큼 나로서는 무척 감동도 되고 고무도 받았다.

한영애는 중국 단둥시에 있

는 고무공장에서 제화로동도 하였다. 그는 로동을 하면서도 동료들에게 길림시절에 부르던 혁명가요를 보급하였으며 로동자들의 권익을 지켜 여러가지 요구조건을 내걸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사람들을 힘있게 불려일으켰다.

한영애는 그후 서울에 나가 몇해동안 홍명희선생의 아들집에서 처녀시절을 보냈다.

그는 조직선을 찾아 다시 만주로 들어가려고 여러해동안 모대기다가 늦게야 결혼하였다. 비록 머리를 쪽지고 가정에 묻히는 몸이 되기는 하였으나 우리와 함께 혁명을 하느라고 뛰여다니던 그 시절의 량심과 지조를 조금도 저버리지 않았다. 우리가 무장을 들고 백두산일대에서 적들을 한창 답새기고 있을 때 한영애는 서울에서 그 소식을 듣고 길림시절의 동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마음속으로 우리의 승리를 빌었다고 한다.

그의 남편은 해방후 남로당원으로 지하활동을 하였는데 후퇴시기 적들에게 피살되었다.

한영애도 전쟁시기 서울근처에서 녀맹조직을 책임지고 전선원호사업을 잘하였다. 남편이 피살된 후에는 나를 찾아간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평양에 들어왔다. 그러나 나를 만나지도 못하고 1951년 8월 14일 밤 적의 폭격에 두 아이와 함께 애석하게도 희생되었다.

나는 한영애가 일생을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한다. 그는 길림시절의 호흡과 발걸음으로 전생애를 살아왔다. 노래를 불러도 길림시절의 노래를 불렀다.

혁명을 하는 사람들은 한영애와 같이 절해고도에서도 신념을 잃지 말고 량심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나의 일생에서는 한영애도 잊을수 없는 은인이었다. 그는 어려운 때에 나를 찾아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준 고마운 녀성이었다.

해방이 되어 조국에 돌아와 한영애의 행처를 수소문하니 그는 공화국경내에 없었다.

해방전에는 항일전쟁을 하느라고 그를 다시 만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가 나의 변장에 필요한 중국옷을 얻느라고 땀을 철철 흘리며 무더위속을 뛰여다니던 일과 렬차에서 군벌들의 조사를 받을 때마다 립기응변으로 위험한 순간순간들을 모면하면서 내 신변을 보호해주던 일, 한점의 지짐떡을 먹으면서도 매번 그것을 절반으로 갈라서는 그중 한쪽을 내앞에 조용히 밀어놓곤 하던 일들을 나는 한시도 잊지 않았다.

그가 나를 위해 한 모든 봉사는 사랑이나 련정과 같은 감정을 훨씬 초월한 깨끗하고 사심 없는 동지애의 산물이었다.

그가 평양까지 들어왔다가 나를 만나보지 못하고 폭격에 희생된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애석한 심정을 금할수 없다.

다행히도 젊은 시절의 그의 사진이 기적적으로 보존되어 내 손에까지 들어왔다. 이 세상에 없는 은인들생각이 가슴에 차오를 때면 나는 나의 청춘시절에 큰 자국을 남긴 한영애의 아름다운 녀을 사진에서 찾으며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리곤 한다.

(끝)



오늘도 그 길을 따라

올해 3월 16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신지 95돛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우리 학생소년들의 마음은 위대한 대원수님에 대한 뜨거운 그리움에 젖어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열두살 어린신 나이에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는 아버님의 뜻을 받드시고 혼자몸으로 팔도구에서부터 만경대까지의 천리길을 걸으셨습니다.

대원수님께서 험난한 그 길을 걸으시면서 조선을 알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말씀의 참뜻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었고 슬픔에 잠긴 조국의 모습에서 일제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복수심을 깊이 간직하시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노가 되어 어렵게 살지만 조상전래의 인정과 미풍량속만은 깨끗하게 간직하고있는 우리 민족의 후더운 인정미를 뜨겁게 느끼시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그날에 걸으시었던 배움의 천리길은 오늘 우리 학생소년들에 의해 년대와 세기를 넘어 이 땅우에 계속 이어지고있습니다.

지난해 7월 나도 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때 나의 마음은 답사행군대오의 한 성원이 된 긍지와 자부

로 한껏 부풀어올랐습니다.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량강도 김형직군의 포평에 도착한 우리 답사행군대오는 7월 8일 포평을 출발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행군로정은 포평에서부터 만경대까지이고 그중 행군거리는 840리나 되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30℃를 오르내리는 삼복의 무더위속에서 땀으로 온몸을 적시며 높이가 1000m가 넘는 험한 령을 넘을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날에는 세찬 비바람속에서 진창길을 밟으며 행군할 때도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태어나 언제 한번 멀리 걸어본적이 없고 빠스나 궤도전차를 타고다니는데 습관된 나로서는 힘에 부치었습니다. 높이가 1119m나 되는 오가산령을 오를 때에는 나를 비롯한 여러 동무들이 맥을 놓고 길옆에 주저앉기까지 하였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눈에 선창으로 안겨온것은 애국애족의 높은 뜻과 강의한 의지로 험한 산발들을 넘으시던 대원수님의 영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힘과 용기로 되어 우리는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면서 행군길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월탄, 화평, 흑수, 장강 등 우리가 이르는 행군로정의 그 어디에나 대원수님의 자취가 깃들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팔도구에 계시는 아버님께 《강계무사도착》이라는 여섯자의 첫 전

보를 치신 강계우편국, 배움의 천리길과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실 때 들리시었던 강계객주집을 비롯한 위대한 대원수님의 혁명사적이 깃든 곳마다에서 해설과 참관을 통하여 우리는 대원수님의 혁명력사와 업적, 인민적품모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답사행군의 나날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선 인민들의 모습과 아름다운 조국의 자연을 직접 목격하면서 우리는 애국의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였습니다. 어떤 동무들은 현실에서 받은 자기의 감동과 심정을 답사행군의 나날에 있는 시랑송모임, 결의모임에서 그대로 발표하곤 하였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강의한 의지와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면서 행군길을 다그쳐 목적지인 만경대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행군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깊이 체득하고 몸과 마음을 더욱 튼튼히 단련하였으며 지덕체를 겸비한 나라의 믿음직한 기둥감으로 준비해갈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불멸의 자욱을 길이 전하여주는 배움의 천리길, 그 길을 우리 학생소년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걸어갈것입니다.

보통강구역 세거리고급중학교 1학년 9반 리강선

세계를 놀라운 전승신화

자주독립국가의 자유로운 인민이 되어 민주의 새 나라를 건설하던 조국인민들앞에 커다란 위험이 닥쳐왔다.

미국은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공화국을 요람기에 전복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망밑에 1950년 6월 25일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당시 미국은 저들의 수적, 군사기술적우세를 믿고 《조선의 운명은 72시간내에 결판나게 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침략자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줄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시고 조선인민군 부대들이 적들의 불의적인 무력침공을 좌절시키고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갈때 대하여 명령하시였다.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방송연설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군대와 인민은 성스러운 조국수호전에 떨쳐나섰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모든 사업을 신속히 전도체제로 개편하도록 하신 그이께서는 인민군대의 반공격작전을 현명하게 조직지휘하시였다.

인민군주력부대는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가 전쟁개시 3일만에 서울을 해방하고 10일후에는 오산에서 벌어진 미군과의 첫 전투에서 《스미스투공대》를 완전피멸시키였으며 련속타격전을 벌리면서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조선인민군 해병들은 주문진앞바다에서 어뢰정 4척으로 《움직이는 섬》이라고 자랑하던 미제의 중순양함 《볼티모》호를 격침시키고 경순양함을 격파하여 세계해전사에 특기할 기록을 남기였다. 인민군비행대들은 《공중요새》라고 뽐내던 미제의 《B-29》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최신형전투기와 폭격기들을 격추, 격파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휘밑에 진행된 대전해방작전은 《상승사단》이라고 자랑하던 미 제24보병사단과 수많은 괴뢰군을 포위소멸하고 사단장 띠을 포로함으로써 현대포위전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인민군은 전쟁이 일어난 때로부터 불과 한달 남짓한 기간에 공화국남반부지역의 90%이상, 인구의 92%이상을 해방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수적, 기술적우세를 믿고

설쳐대는 미제를 우리 식의 전략전술과 전법으로 타승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전전선에서의 즉시적인 반공격전, 련속타격과 포위섬멸전, 정규부대들에 의한 적후 제2전선의 형성, 적극적인 진지방어전과 갱도전, 비행기사냥군 조운동과 땅크사냥군조운동을 비롯하여 그이께서 창조하시고 활용하신 전략전술과 전법들에 의하여 미제는 하늘과 땅, 바다에서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미제는 저들의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크리스마스총공세》, 《하기 및 추기공세》와 《신공세》등을 련이어 벌려놓았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전법과 인민군군인들의 대종적영웅주의에 의해 주검만 덧쌓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준엄한 전화의 나날 그이께서는 서울과 수안보, 광주를 비롯한 불비쏟아지는 최전방의 군인들과 후방의 인민들을 찾으시여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그이의 사랑과 믿음은 미제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전쟁승리를 앞당긴 근본담보였으며 원동력이였다.

인민군전사들은 불타는 락동강과 월미도, 1211고지와 351고지를 비롯한 격전장마다에서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하였으며 군자리로동계급과 남강마을녀성들을 비롯한 후방의 인민들은 적들의 맹폭격속에서도 전시생산과 전선원호를 보장하고 늙은이로부터 나어난 소년단원에 이르기까지 남녀로소가 모두다 떨쳐나 사랑하는 고향마을을 지켜 용감히 싸웠다.

미제는 전쟁기간 최후발악을 다하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의지를 천백배로 더해주었으며 자기들의 멸망을 촉진시키였다.

막다른 궁지에 빠진 미제는 부득이 1953년 7월 27일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조선전쟁당시 미국의 장군들은 저들의 패전에 대하여 이렇게 실토했었다.

《신화는 깨여지고말았다. 우리는 남들이 생각했던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아니였다.》, 《개국이래 미국의 위신이 지금처럼 땅바닥에 떨어진적은 없었다.》...

신화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는 이 경이적인 승리를 통하여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주체조선의 영원한 7. 27의 전통을 마련하게 되었다.

본사기자

변함없이 가야할 길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이 제시된 때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공화국은 병진의 기치밑에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악랄하게 말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봉쇄책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되는 속에서도 참으로 세상을 놀래우는 사변적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돌이켜보면 지난 5년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아가는 공화국의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온갖 비렬한 책동을 다하였다. 그들은 병진로선에 대해 《비현실적》이니, 《경제와 민생을 파괴하게 만들것》이니 뭐니 하고 악랄하게 중상모독하였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전대미문의 제재와 압박, 군사적위협공갈책동에 매달리였다.

공화국이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를 취할 때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제재결의》라는것을 련이어 조작해내어 공화국의 경제교류와 금융거래를 전면봉쇄하였으며 대규모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았다. 여기에 굴종과 맹종이 체질화된 나라들도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대결소동에 편승하여 공화국의 병진의 길에 갇은 훼방을 다하였다. 특히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유엔무대에 나서서까지 주권국가들 《완전과피》, 《절멸》시키겠다고 췌쳐대었다.

하지만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병진로선을 받들어 무섭게 솟구치는 공화국의 위력에 질겁

한자들, 속이 뒤틀린자들의 궤변과 발악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힘차게 전진하였다.

자위적핵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공화국은 전략잠수함 탄도탄과 각이한 전술 및 전략탄도로켓전투부들에 장착할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 대출력로켓트발동기,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 등 첨단수준의 주체적인 핵공격수단, 핵무기들을 련이어 개발하였다. 뿐만아니라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한데 이어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성공하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향해 전진해가는 공화국은 련이어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1차, 2차 시험발사를 단행하여 성공시키였으며 그에 장착할수 있는 수소탄의 폭음도 높이를 리였다. 뿐만아니라 미국본토 전역을 타격할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를 성공시킴으로써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인 대업, 로켓강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병진의 지난 5년간은 조국의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눈부신 비약과 기적을 창조한 력사적사변의 나날이였다.

자력자강의 기치밑에 인민경제가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용마를 타고 상승궤도에 들어서고 중요부문에서 혁신이 이룩되어 자립경제의 위력을 과시하였으며 려명거리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신화적인 건설속도가 창조되였다.

병진로선은 또한 조국땅에 희한한 화폭들을 펼쳐놓았다.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자체로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고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곳곳마다에 꾸려져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으며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소년단야영소, 소년궁전에서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다. 그런가 하면 레년에 보기 드문 과일풍작을 안아오고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졌으며 다수확농장과 작업반대렬이 계속 늘어나 온 나라를 흥성이게 하고있다.

현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병진로선의 길만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확고히 담보하며 국력이 강하고 세상에 부럼없이 잘사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할수 있으며 조미대결전에 단호히 종지부를 찍고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하기에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이 병진로선을 자기들의 가슴마다에 억척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변함없이 이 길을 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민족자주의 리념을 지니시고

3월 23일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께서 백여년전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신 뜻깊은 날이다.

력사의 이날을 맞는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일찌기 민족자주의 리념을 지니시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형직선생님의 빛나는 생애와 업적을 감회깊이 되새겨보고있다.



학당골혁명사적지에 건립된 사적비

자주는 곧 민족의 얼이고 인류의 지향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자주를 위한 투쟁은 민족의 선각자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고 목숨까지도 바쳐야 하는 준엄한 길이다. 하지만 그 누구나 걸을수 없는 그 피어린 길을 수없이 헤쳐가신 김형직선생님이시였다.

돌아보면 일제가 총칼로 조선을 강점한 후 조선인민은 국권회복과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해 필사의 몸부림을 쳤지만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수난의 그 시대는 온 민족을 투쟁으로 향도해갈 옳바른 지도적지침을 목마르게 기다리고있었지만 그것은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생겨나는것이 아니였다.

당시 인민의 이 요구와 자신의 가슴아픈 체험을 안으시고 또 진지한 탐구로 독립운동의 방략을 무르익히시던 김형직선생님께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시였다. 그것은 온 민족을 불러일으켜 일제를 멸망시킬만큼 힘을 키우면 능히 침략자들을 물리칠수 있다는것, 이 일은 하루이틀에 성취될수 없기때문에 뜻을 멀리 가져야 한

다는 《지원》의 사상이였다.

견결한 반제자주적립장과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인생관,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해야 한다는 《지원》의 사상을 안으신 선생님께서 온 민족을 단합된 하나의 자주적력량으로 묶어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시였다.

봉화리를 활동거점으로 정하신 그이께서는 여러 지역에 나가시여 인민들의 동향과 독립운동의 실태를 여러모로 더 깊이 료해하시고 군중을 교양하고 핵심들을 키우시였으며 동지들에게 지하혁명조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과업도 주시였다. 그리고 친목회, 학교계, 향토계 등 합법적인 조직들과 단군릉분향식과 같은 회합을 조직운영하도록 하시여 혁명조직결성의 대중적지반을 닦아나가시였다.

동지구합과 대중교양이 심화되는 과정에 핵심들이 수많이 자라나게 되였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군중이 계몽각성되게 되였다.

이렇게 혁명조직을 내오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갖추신 김형직선생님께서 1917년 3월 23일 평양 학당골에서 력사적인 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새로운 혁명조직의 탄생을 엄숙히 선포하시면서 조선국민회의 목적은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우는데 있다고 밝혀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조선국민회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넓은 지역에 확대발전시키는 문제,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워 반일독립운동에 조직동원하는 문제, 반일단체들과의 련계를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비롯한 투쟁과업과 방도를 밝히시였다.

조선국민회는 그 목적과 투쟁과업에 뚜렷이 밝힌바와 같이 반제자주적립장이 강한 반일지하혁명조직으로서 그 이전시기의 반일단체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조직이였으며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혁명적인 조직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지니셨던 높으신 뜻은 오

행복속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의 진가에 대해 다는 알지 못하는듯싶다.

그래서 《복속에서 복을 모른다》는 말도 생겨났는지...

길지 않은 이 말이 시사해주는것처럼 조국인민들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그 얼마인지 다는 모르고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고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마음껏 배우면서도 학비라는 말을 모르고있으며 돈 한푼 내지 않고 새 집을 받고 그 집에서 살면서도 집값이라는 말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다.

모른다!
내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뜨겁게 응축되어있는 이 말의 의미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것은 얼마전이었다.

나는 세계보건기구와의 사업을 맡아보고있는 보건성 일군인 최숙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였다.

최숙현은 긴것과 짧은것, 좋은것과 나쁜것은 대비해보아야 하는것처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에 대해 잘 알자면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리용하고있는 의료봉사재정지출방식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는 지금 많은 나라들의 의료봉사지출방식에는 세금을 기초로 하는 국가의 재정지출방식과 개별적주민들의 로임이나 때로 기업체나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사회건강보험제에 기초한 지출방식, 사영보험회사의 보험금에 의한 지출방식들이 있

다는것이였다.

나의 생각은 깊어져갔다. 과연 하나의 상업이나 다름없는 자본주의적가치관에 뿌리를 두고있는 이 의료봉사재정지출방식들이 과연 근로인민대중의 건강을 믿음직하게 보호할수 있을가.

나의 경우만 놓고보아도 평양 산원에서 두 아이를 낳으면서 병원접수비, 입원비, 진찰비, 검사비, 수술비라는 말 한번 들어보지 못하였으며 해산후 의례히 마시는 산골, 식사때마다 오르는

수 필

모른다

따끈한 미역국 등이 응당 차례지는것으로 생각하였을뿐 그 값이 얼마인가를 전혀 몰랐다. 아니 구태여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조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온 나라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난 치료예방기관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훌륭히 일떠선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와 류경치과병원, 옥류야동병원, 문수기능회복원, 류경안과종합병원 등에서 돈 한푼 내지 않고 치료를 받고있다.

섬마을의 한 녀인을 위해 비행기가 날고 외진 산골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진료소가 세워지고 의사들이 환자들을 찾아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의 혜택을 다름아닌 우리가 받고있다.

어찌 의료부문뿐만이겠는가. 조국에서는 교육부문에서도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가 실시되는것을 비롯하여 사회생활전반에서 인민들의 편의가 최우선, 절대시되고있다.

제일 좋은 곳에 학생소년궁전과 야영소며 탁아소, 유치원, 학교를 먼저 세워주어 누구나 자기의 희망에 따라 마음껏 공부도 하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모든 교육조건과 환경을 보장해주고있을뿐아니라 사회주의문명강국의 체모에 맞는 새 거리, 새 마을들을 일떠세워 평범한 인민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있는 우리 조국!

조국인민들 그 누구에게라도 치료비, 학비, 집값이 얼마인가고 물어보라.

하다면 그들은 《모른다.》는 이 한마디 대답밖에 더 하지 못할것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있는 행복의 세계가 어려오고 사회주의 내 조국의 참모습이 비껴오는 말- 《모른다!》

이런 생각을 더듬는 나에게는 마치도 《모른다.》는 이 말이 조국인민들의 행복의 대명사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확신하였다. 우리 조국인민들은 앞으로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 제도를 마련하여주시고 빛내여주시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 는 신념과 의지를 안고 더 눈부신 사회주의강국의 래일을 향하여 질풍노도처럼 달려갈것이라는 것을.

본사기자 연옥

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에 의하여 조국땅에 현실로 펼쳐졌으며 수령님들의 위업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로 더욱 더 빛을 뿌리고있다.

푸른 소나무의 역센 기상을 안으시고 민족자주의 리념밑에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고 반일민족해방운동을 힘있게 전진시키신 김형직선생님의 고귀한 업적은 영원히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화물자동차생산에서 혁신을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새형의 5t급화물자동차생산에서 혁신을 이룩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로 새형의 5t급화물자동차를 만들어낸 이곳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차생산을 시작하는데 이어 올해에도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있다.

혁신의 앞장에는 자동차의 기관본체와 감속기본체 등에

대한 가공을 맡고있는 대형차 1직장과 정밀가공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서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직장사이의 유기적결합을 빈틈없이 세워 지난 시기의 기존관념을 타파하고 가공속도를 2배나 높이는 새 기록을

창조하고있다.

그에 뒤질세라 생산의 앞공정을 맡고있는 회색주물직장과 소재직장, 주강직장, 변속기직장 등에서도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다.

회색주물직장에서는 내부에



비를 적극 람구동원하는 한편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수십여종에 수십개의 주물품 생산계획을 예정기일보다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고 소재직장에서는 보통때에는 엄두도 못내던 방대한 소재생산을 빠른 기일에 수행하였으며 주강직장에서도 앞제 동기본체를 비롯한 수많은 주강품을 련속 생산해내고있다. 이러한 생산적양양의 밀바탕에는 각종 지구, 장비를 수백 개나 제작하여 보장해준 련관 직장들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수고가 깃들어있다.

성과는 변속기직장에서도 일어나고있다. 이곳에서는 변속기제작에 필요한 크고작은 부속품들을 손색없이 가공하여 조립하고있다.

변속기직장 직장장은 우리에게 지금은 아무런 지장이 없이 변속기들을 다량생산하고있지만 개발 초시기에는 험치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 조립하였던 변속기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 일부 손맥을 놓았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자기들은 자력자강의 네글자에 새겨진 깊은 뜻을 다시금 새기며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끝내는 완전무결한 변속기를 내놓을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승리기관직장에서도 자동차의 기관 총조립시간을 앞당겨 나가고있다.

로동자 최필현은 우리에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수님께서 현지도의 그날 새형의 화물자동차를 보아주시고 그토록 기뻐하시었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그이의 믿음과 사랑을 언제나 가슴깊

이 새기고 자동차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고 말하였다.

하기에 직장에서는 최근에 만도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설비들을 부단히 갱신하고있으며 기관의 총조립시간도 종전에 비해 훨씬 앞당기고있다.

이런 열의는 비단 그들만이 아닌 기업소의 직장, 작업반 종업원들의 심장속에서 세차게 끓고있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기업소에서는 새형의 화물자동차들이 끊임없이 생산되어 나오고있는것이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조선중앙통신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이 각지로 떠난다.



—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하여 —

새 제품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올해 신년사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운하대성식료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하루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것으로 만족하던 지난 시기와 달리 새 제품개발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돌리도록 종업원들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들은 지난해 공장에서 130여가지의 새 제품을 개발, 생산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올해에도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이 사업을 진행해나갈도록 하고있다.

공장의 기술일군들은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통하여 종업원들에게 식료품의 세계적발전추세와 설비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고 있다.

강련희, 한혜순, 리춘호, 김옥금, 김필성을 비롯한 작업반장들은 새 제품개발의 직접적인 담당자라는 자각을 안고 종업원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지혜를 합쳐 제품의 모양과 색깔, 맛, 영양학적가치 등을 개선하는데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새 제품들의 도안창작에서도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도안가 장문경은 남의것에 대한 모방이 아니라 《대하》제품의 개성이 엿보이면서도 구매자들의 눈길을 끌수 있게



개발한 착상으로 도안들을 높은 수준에서 완성해나가고 있다.

기술부원 김해옥은 《대하》제품들의 가치수가 나날이 늘어나는데 맞게 기술규격, 도안규격, 품질인증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지배인 최진숙은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다양하고 질좋은 <대하>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공장이 인민생활향상에서 한몫하는 공장,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장으로서 되도록 하겠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숲을 가꾸어가는 여성들

우리 조국에는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푸른 숲을 가꾸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그들중에는 평안남도 평성시의 평범한 여성들의 모습도 볼수 있다.

그들은 가정의 살림살이도 맡아하고 남편을 공대하며 자식들의 뒤바라지를 하느라 바쁜 가정부인들이지만 자기 고장의 산들을 푸르게 하는데서도 성실한 땀과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지금 그들의 노력으로 하여 시안에는 덩지 큰 모체양묘장이 훌륭히 건설되고 이곳에서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이 생산되어 주례동과 봉학동, 구월동 등의 산들이 푸르게 단장되고있다. 특히 나무가 자랄수 없다고 하던 주례동의 산들에 여러 수종의 나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이곳 여성들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사실 주례동의 산들은 지난 시기 토심이 얇고 돌이 많은 등 조건이 매우 불리하여 선뜻 나무를 심을념을 못하였다고 한다. 그런것으로 하여 여성들이 그 산을 자진하여 맡아나섰을 때 도리머리를 젖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은 아마 여성들이 한해쯤 나무를 심어 보다가 손덜고 나았을것이라는 제 나름의 추측을 하기도 하였다.

그렇수록 김옥, 김영순, 백경복을 비롯한 주

례동 여성들은 그 산에 기어이 푸른 숲을 펼쳐놓을 결심을 보다 굳히며 산림복구에 달라붙었다. 하지만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렇게 애를 쓰며 심은 나무들이 하나둘 죽어가는것이였다. 그것을 보며 맥을 놓은적도 있는 여성들이였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나무가 없는 산들을 그토록 가슴아프게 바라보시며 산들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자고, 푸른 숲이 설레이는 아름다운 강산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며 분발해나섰다.

그들은 나무의 생육에 유리한 토양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저지마다 가정에서 마련한 유기질비료를 배낭에 담아지고 산으로 올랐으며 나무의 사름률을 높이는데 필요한것이라면 먼길도 서슴지 않고 가서 구해왔다. 그리고 나무 한 그루, 한그루를 정성다해 심었으며 심은 나무에 대한 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갓 심은 애어린 나무들이 부러지지 않을가, 썩약벌이 내리쬐일 때에는 가물피해를 받지 않을가 늘 관심하며 북도 주고 김매기도 알심있게 하면서 비배관리에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여성들의 이런 정성으로 하여 나무가 자랄수 없다고 하던 주례동의 산들에 여러 수종의 나무들이 든든히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며 가지마다에 푸른 잎새를 한껏 펼치며 잘 자라 지난해부터는 잣나무들에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였다.

성과는 그들만이 아니였다.

빈땅이 있을세라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기 위해 애쓰는 옥전2동의 여성들과 품들여 심어놓은 나무들이 자그마한 피해도 입지 않도록 정성다해 가꾸어가고있는 하차동, 삼화동, 두무1, 2동의 여성들을 비롯하여 숲에 진정을 바쳐가는 시안의 여성들의 아름다운 소행은 많고많다.

가까운 앞날에 자기 고향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려는 평성시 여성들의 산림복구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푸른 숲을 가꾸기 위해 애쓰는 여성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봉학지구에 조성한 산림





아동들의 심리를 파고들어

이제 얼마후이면 3.8국제부녀절이다.

하지만 사동구역보육원학교 교장 최영희에게로는 전국각지에서 벌써부터 축하전화, 손전화통보문이 그칠새없이 들어오고있다.

그들의 전화와 통보문속에는 훌륭한 어린이지능개발도서를 집필한 최영희교장에 대한 남다른 존경이 깃들어있었다.

전국각지에서 보내오는 진심어린 인사를 받을 때면 그는 지나온 나날들을 어제런듯 떠올리곤 한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한 그가 아동도서들을 집필할 생각을 한것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전이었다.

여느때없이 강의에 들어갔던 그는 탁아소어린이들에게 교육하는 이야기그림책을 비롯한 도서들이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게 충분히 갖추어져있지 못한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나니 많은 보육원들이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교양에서 애로를 느끼고있었다.

그날 그는 잠을 이룰수 없었다.

(탁아소시기 어린이들의 머리는 그야말로 깨끗

한 흰종이와 같다고 말할수 있다. 이런 어린이들에게 풍부한 교육을 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조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바닥없이 깊어지는 생각을 어쩔수 없었던 교장은 아동도서들을 자기가 집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다음날부터 그는 수업이 끝나면 사동구역안의 탁아소, 유치원들을 돌아다니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다.

아이들에게 재미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숨박꼭질, 줄넘기 등 다양한 놀이도 하면서 자기가 집필할 책의 구성체계를 하나하나 세워나갔다.

그 나날 아이들은 최영희교장을 자기들의 딱친구로 여기며 자기들의 속생각을 숨김없이 터놓았으며 어떤 어린이는 어제밤 엉뚱하게 꿈내용까지 다 이야기하였다.

그는 어린이들과 생활하는 과정에 그들의 관찰력과 기억력, 상상력, 사고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는것을 알게 되었으며 도서들도 이것을 살려주는 방향에서 나아가 하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그는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여러곳을 다니며 방대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아동미술가들을 만나 진지한 토론도 거듭하였다.

이런 노력끝에 그는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이야기들을 묶은 《재미나는 이야기그림책》(1, 2, 3권)과 《우리 말을 배워요》(단어편, 응용편), 《생각해보자요》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그는 책이 나오자마자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먼저 선을 보이였다.

어린이들은 그가 집필한 도서들의 한페이지한페이지를 주의깊게 보기도 하고 또 따라 읽으면서 좋아 웃기도 하였다.

《아이들은 가식이 없다. 쓰면 벨어버리고 달콤하면 한입에 삼킨다. 엄격한 심사원들인 아이들에게서 〈합격도장〉을 받은 나의 심정은 정말 기뻐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오늘 최영희교장의 얼굴은 몰라도 그가 집필한 도서는 전국의 어린이들과 어머니들 누구나 알고 있다.

대성구역 려명유치원 교양원 리경은 이렇게 말하였다.



더 좋은 도서를 편집하기 위해

《어린이시기는 태어나서부터 5~6살까지의 시기로서 지능이 싹트는 중요한 시기이다. 탁아소시기부터 언어감각능력배양교육을 시작하여야 유치원에 올라오면 어린이의 지능이 더 계발되어 머리가 빨리 트게 되는데 〈우리 말을 배워요〉, 〈생각해보자요〉를 비롯한 도서들은 여기에 만족을 주고있다.

하기에 주체104(2015)년 1월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지능놀이실에 있는 〈우리 말을 배워요〉, 〈생각해보자요〉라는 도서들은 어린이들의 지능을 계발시키는데 좋은 도서들이라는 치하의 말씀을 주시였다.》

최영희교장은 오늘도 어린이들의 길동무로 될 새로운 어린이지능교육용음성그림책을 집필하고 있다.

글 본사기자 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최영희가 집필한 도서를 보는 어린이들



혈육의 심정으로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는 조국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위한 아름다운 소행이 수없이 꽃피고 있다. 그속에는 평양시 보통강구역인민병원 내과의료집단이 발휘한 소행도 있다. 특히 특류영예군인들에 대한 그들의 진정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보통강구역에는 여러명의 특류영예군인들이 있다. 그들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에 현대 의학이 이미 생명이 끝났음을 선고하였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병원의료집단에 의해 그들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게 되었으며 오늘 보람찬 삶을 누려가고 있다.

특류영예군인들에 대한 치료사업의 시작을 뻔 사람은 병원 내과 과장 김관희이다. 당시 그가 보통강구역 류경1동 14인민반에 사는 특류영예군인 신금철을 보았을 때 그의 상태는 다장기중후군으로서 최악의 상태였다고 한다. 사실 그로서는 그러한 상태의 환자를 치료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나라에서 아끼고 내세우는 특류



영예군인에 대한 치료대책을 토의한다.

영예군인을 기어이 일으켜세워야 한다는 하나의 생각으로 치료사업에 나섰으며 여기에 과성원들을 불러일으켰다. 하여 모든 성원들이 이 사업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누구나 특류영예군인에 대한 치료대책을 세우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바치었다.

그 과정에 그들은 강장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치료방법을 찾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환자

를 위한 집중적인 보양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나날 의사, 간호원들은 환자에게 고가약은 물론 인삼, 꿀을 비롯한 보양재를 마련해주었으며 그가 식사를 못할 때에는 별식까지 해주며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오랜 기간 꾸준히 노력한 보람이 있어 환자는 일어나게 되었으며 드디어 대지를 활보하

집중치료실에서



영예군인의 집을 찾아



게 되었다.

귀중한 경험을 얻은 그들은 그에 기초하여 이 병을 가진 모든 특류영예군인들에 대한 치료에서도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하지만 특류영예군인들에 대한 그들의 치료사업은 그것으로 끝난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특류영예군인들이 계속 건강한 몸으로 삶을 누려가도록 하기 위해 그후부터는 해마다 40여일간 병원에 입원시켜 보양치료사업을 진행하였다. 물론 이 사업은 병원적인 사업으로, 구역적인 관심과 후원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렇게 특류영예군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이곳 의료집단은 특류영예군인들의 보양치료를 더 잘해나가기 위해 보다 애써 노력하였다. 누구나 치료에 쓰일 보양재를 구하기 위해 먼길도 마다하지 않고 다녀오곤 하였으며 특류영예군인들의 사업과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보살펴주었다.

이와 함께 명승지들에 대한 답사도 자주 조직하여 영예군인들이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낼수 있도록 원심도 썼고 성의를 다하여 푸짐한 생일상도 차려준 이곳 의료일군들이다.

하기에 특류영예군인들은 자기들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고 친혈육의 심정으로 보살펴주는 이런 의료일군들과 고마운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있어 자기들이 앞으로도 건강한 몸으로 복받은 삶을 계속 누려갈것이라고 뜨거움에 젖어 이야기하곤 한다.

오늘도 보통강구역인민병원 내과의료집단은 특류영예군인들만이 아닌 구역안의 주민들의 생명을 위하여 높은 의술, 뜨거운 정성을 다 바쳐가고 있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건강, 젊음, 비려 를 담오합니다

생명발생의 기원으로 알려진 바다감탕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치료에 리용하여왔으며 현재 광천물리치료의 한 부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류황감탕은 그속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필수아미노산들, 비타민들, 유기물질들과 80여종의 다량 및 미량원소들, 항생제류사물질들, 녀성호르몬류사물질들이 있는것으로 하여 생물자극작용, 신경재생작용 등에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조선서해 광량만류황감탕이 그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할로겐성 광물고려약제에 속하며 교질성분이 19~20%로서 다른 바다감탕에 비하여 2배이상 많고 염도는 3~4%, 광량만의 독특한 지형학적 조건으로부터 각종 광물질과 유기물질이 풍부한 광량만류황감탕은 류황함량이

0.6~0.8%로서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량만류황감탕가공공장에서 치료범위가 넓고 효과가 명백한 광량만류황감탕으로 천연기능성화장품들과 집집승먹이첨가제 등 여러가지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든 《진주》천연기능성화장품은 피부로화를 막고 온몸의 긴장과 피로를 풀며 여러가지 피부병, 동맥경화증, 비만증을 예방하는데 특효가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사람들이 멀리 바다에 가지 않고도 감탕욕과 감탕찜질, 감탕미안 등을 할수 있도록 편리상방조를 주고 있습니다.

건강, 활력, 젊음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광량만류황감탕을 생활에 널리 리용해보십시오.

글 본사기자 김솔미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몸도 마음도 속속



얼마전 우리는 라선시 선봉지구 만복유치원을 찾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이끌려 유치원을 찾게 되었다는 우리의 말에 원장 김금주는 반겨맞아 주며 우리를 종합놀이실로 이끌었다. 이곳에서 어린이들은 재미있는 놀이들을 하고 있었

다. 제법 어른들처럼 의사복을 척 입고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하고 물으면 《환자》인 어린이가 자기의 아픈 곳을 호소하는 의사놀이, 그릇에 놀이감음식들을 담아놓고 갈도마에서 칼질도 해보며 엄마들의 흉내를 내는 세간놀이, 무엇이나 척척 만들어내는 맞추기놀이, 토끼, 거북이, 고슴도치도 되보군 하는 가면놀이를 비롯하여 어느 놀이에도 아이들의 꿈이 비껴있었다. 원장은 아이들에게 있어 놀이감은 단순한 완구가 아니라 학교전어린이들의 교과서와 같다고 하면서 하나의 지능놀이, 유희오락놀이는 봄싹처럼 움트는 취미와 소질을 가진 아이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였다.

아이들과 같이 있느라니 언제 시간이 가는줄 몰랐다. 이어 우리는 높은2반 교양실에도 들러 보았다. 교양실에 들어서니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선률에 맞추어 김정경, 김지예어린이들이 목금과 장고를 치고있었다. 우리와 만난 박수림교양원은 라선시적으로 이름이 자자한 어린이들이라고 하면서 김정경어린이는 목금뿐아니라 타악기와 전자풍금도 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전문가들도 놀랄 정도라고 하였다. 역시 장고와 전자풍금을 다룰뿐만아니라 춤도 잘 추는 김지예어린이의 모습도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이들뿐이 아니었다. 바둑, 설패기, 체육을 다 잘하

는 황보정, 글짓기를 잘하는 리광림, 김영정어린이들... 그들 한점없이 재능을 꽃피워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만졌다. 3년전 큰물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의 얼굴에 그들이 질세라 번듯한 새 유치원을 일떠세워주시고 교육설비들까지 일식으로 보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웅심깊은 사랑의 세계가 어려와서였다. 그래서 만복유치원의 어린이들 누구나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즐겨부르며 몸도 마음도 자래우는것 아니라. 우리는 따사로운 햇빛아래 훌륭한 재간둥이들로 자라나게 될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이곳을 떠났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수일

탁구 선수 후비들로 준비해간다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에 자리잡고 있는 김성주소학교는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자욱이 새겨진 영광의 학교이다.

학교교직원들과 학부형들의 깊은 관심속에 탁구소조가 활발히 운영되고있는 이 학교에서는 탁구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나날이 늘어나 탁구가 대중화되어가고있을뿐만아니라 여러 경기대회들에서 우승하여 탁구자랑이 늘어나고있다.

학교의 탁구소조원들은 지난해에 진행된 제11차 전국소학교체육학급체육경기대회 탁구종목 남자단체전에서 우승컵을 받았으며 개인경기과 복식

경기에서 금메달 1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시기에도 학교는 제2차 전국탁구학급경기대회, 평양시탁구학급기술혁신경기를 비롯하여 수많은 경기들의 단체 및 개인경기들에서 우승하였다.

교장 리영렬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업성적이 높고 육체적조건이 좋은 적성체질의 학생들을 선발하고있으며 소조원들의 훈련조건보장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학교의 탁구발전은 지도교원 김인숙의 숨은 노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그는 학생들에게 바로치기와 외로치기, 밀어치

기, 쳐넣기 등 여러가지 기초기술동작들을 정확히 배워주고있을뿐만아니라 공감각능력을 높이고 유연성과 교차성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훈련방법들을 부단히 탐구하여 실천활동에 적극 구현해나가고있다.

5학년 3반에서 공부하는 홍지수학생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처음 기초기술훈련을 할 때 선생님은 음악에 맞추어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 동무들도 정확한 기초기술동작을 빠른 시간동안에 몸에 익히게 되었으며 유연성도 해결되었다.》

탁구소조원들의 기술수준이 일정하게 오르는데 맞게 그는



학교에서 배출된 이름있는 탁구선수들이 김성희, 리근상

경기식훈련을 적절히 배합하여 경기타과 경기운영능력을 높여주고있다.

이렇게 자란 이 학교의 학생들은 나라의 탁구선수후비들로 자라나 여러 체육단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김인숙은 해마다 늘어나는 학교의 탁구자랑이 조국의 체육강국건설성공에 기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글 분사기자 려 해 사진 분사기자 최원철



훈련에 열중하는 학생들



학습에서도 언제나 앞자리를 차지하는 탁구소조원들



상 식

중세 말기 이름난 수공업 및 상업도시

중세 말기에 우리 나라에서 여러 가지 수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이 부문에서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생, 발전하였다. 특히 전통적수공업부문의

하나인 놋그릇(유기)제조업에서 공장제수공업이 발전하였으며 그 명산지들이 늘어났다.

즉 이전에는 개성, 진주, 안성(경

기도) 등 몇개 고을만이 놋그릇명산지였으나 19세기에 들어와 정주(평안북도), 재령(황해남도), 함흥(함경남도), 구례(전라남도)를 비롯한 새

로운 명산지들이 형성되었다. 그가운데서도 정주 청정동(납청)이 유명하였다. 이곳에서는 대야, 양푼, 바리 등 그릇과 숟가락, 대통 등 놋제품을 많이 생산하였는데 놋그릇은 주로 단조(압연)하여 만들었으나 주물하여 만들기도 하였다.

이 시기 안성에서는 놋그릇을 비

롯하여 숟가락과 저가락, 대통과 물부리 등 제품별 분업생산이 이루어지고있었다.

안성에서는 놋그릇수공업뿐만아니라 철제품, 나무제품, 가죽제품과 갓, 망건 등을 만드는 수공업도 발전하였는데 이러한 제품들은 역시 전국적으로 가장 큰 장시의 하나인 안

성읍내장을 통하여 각지에 널리 유통되었다.

이와 같이 중세 말기에 행정중심지의 하나였던 안성과 신흥수공업 또는 상업중심지였던 정주 납청, 박천 진두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공업, 상업도시들이었다.

* * *

미술의 어제와 오늘을 보며 (3)

항일혁명미술작품들을 본 후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조선화 작품들이 전시되어있는 16호실과 17호실을 돌아보았다.

16호실에서 강사는 먼저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화는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미술형식으로서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할뿐 아니라 그 필치가 힘있고 아름다우며 고상한것이 특징입니다. 이 시기 조선화분야에서 이룩된 커다란 성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화폭에 모시고 혁명전통주제와 우리 인민의 생활과 투쟁을 진실하게 반영한 혁명적인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사는 조선화 《초소에 찾아오신 수령님》(박창섭)과 《검덕골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정중히 가리키었다.

조선화 《초소에 찾아오신 수령님》은 어느 한 인민군구분대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방금 근무를 교대하고온 전사를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아 보살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감명깊게 보여준 작품이었다.

이어 강사는 조선화 《남진하는 길에서》(리

영식), 《락동강할아버지》(리창), 《고성인민들의 전선원호》(정중여), 《남강마을의 녀성들》(김의관)을 비롯한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형상한 조선화작품들앞으로 참관자들을 이끌었다.

그가운데서도 조선화 《남진하는 길에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해방된 남녘의 한 마을에서 무더운 여름날 어머니와 딸애가 인민군전사에게 찬물을 떠서 대접하는 자그마한 생활을 실감있게 형상함으로써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에 관한 사상을 훌륭히 보여주고있었는데 화가자신이 전쟁시기 실지 체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그린것으로 하여 더욱 소박하고 진실하며 생동하였다.

하나의 장대를 틀어쥔 4명의 용해공들의 모습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천리마시대 강철전사들의 끝없는 충정심을 잘 보여준 조선화 《강철의 전사들》(최계근)을 비롯하여 《양어장에서》(리길남), 《팔려가는 날》(리형규), 《실뜨기》(정현웅), 《춤》(김용준)과 같은 작품들도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강사는 전통적인 민족춤을 추는 무용수를 그린 조선화 《춤》을 가리키며 이 그림이 빨스까의



조선화 《락동강할아버지》

어느 한 전람관에 전시되었을 때 그 나라의 로예술가는 작품의 신비한 예술적형상에 감탄한 나머지 그냥 보고 지날수 없다고 하면서 모자를 벗고 절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7호실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미술분야에서 대전성기가 마련되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창작된 조선화작품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조선화 《강철의 전사들》



조선화 《실뜨기》



조선화 《팔려가는 날》



강사는 이 시기에 조선화 《수령님, 앞에는 최전선입니다》(리상운, 김정태), 《유자녀들을 한품에 안으시여》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롭고 거룩하신 품모를 진실하게 그려내려는 창작적지향이 훌륭히 실현된 의의깊은 성과작들이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어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조선화 《강선의 저녁노을》(정영만)앞에 섰다.

그는 이 작품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종자를 잡아주시고 여러차례 지도를 주신 작품이라고 하면서 저녁노을의 시간적계기를 옹계 잡고 화면전반에 타오른 붉은 노을과 방금 출강소리를 울리며 쇠물바가지들이 오가는듯 한 창문마다의 불빛을 통하여 강철로 당을 변함없이 만들어어나가는 로동계급의 투쟁모습을 풍경화로 새롭게 형상하여 국내는 물론 대외미술전람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설하였다.

참관자들은 조선화 《산전막에 깃든 사랑》(김상직), 《지난날의 용해공들》(김성민), 《불멸의 글밭》(리윤식), 《들끓는 건설장의 밤》(김상도), 《갑오농민전쟁》(김규학), 《내금강의 아침》(문화춘)을 비롯하여 새롭게 탐구한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조선화 《산전막에 깃든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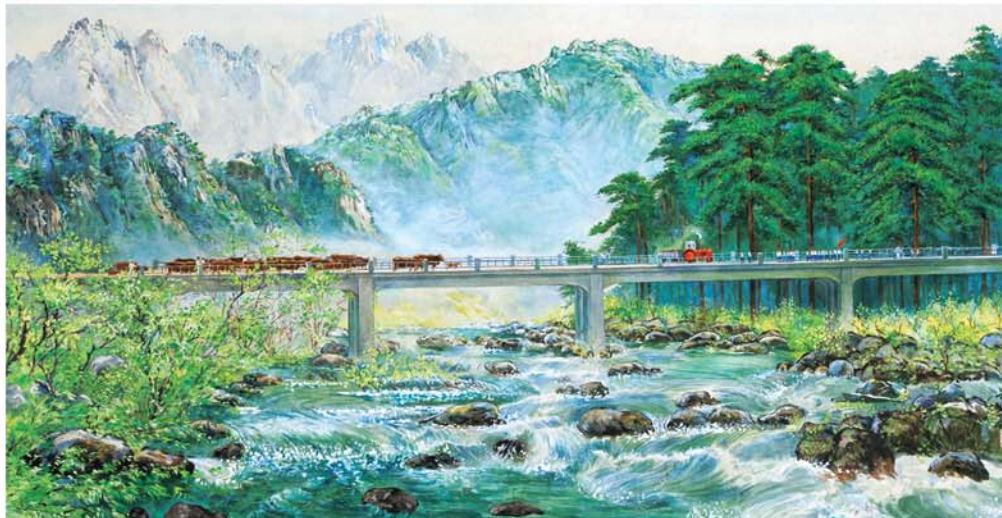
강사는 조선화 《지난날의 용해공들》은 일제와 자본가들의 가혹한 천대를 받으며 시뻘겋게 단 육중한 쇠덩이를 메어나르는 용해공들의 모습을 진실하게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새 세대들의 계급교양에 이바지하고있는 작품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조선화 《갑오농민전쟁》은 《보국안민》, 《척양척왜》의 구호를 높이 들고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과감히 일떠선 전봉준농민군의 폭동을 형상한 폭이 큰 역사주제화로서 각이한 인물들의 성격을 박력있는 구도속에 몰골기법을 위주로 예리하게 형상하여 19세기 말엽 당시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모습을 격동적으로 보여주고있었다.

조선화 《내금강의 아침》에서는 금강산의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자연그대로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인민의 행복이 꽃피어나는 인민의 금강산, 락원의 금강산으로 형상하고있었다.

우리는 전통적인 민족회화형식을 현대화하는 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나

조선화 《내금강의 아침》



조선화 《강선의 저녁노을》

라의 전반적인 미술부문을 력사에 일찌기 있어 본적이 없는 미술의 대전성기로 빛나게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조선화들을 깊은 감동

속에 돌아보고 참관자들과 함께 다음 호실로 걸음을 옮기였다.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조선화 《갑오농민전쟁》





고향소식

레일을 향해 약동하는 고장

홍건도간석지

우리는 얼마전 미국의 로스앤젤스에서 살고있는 신병수동포의 고향 평안북도 선천군을 찾았다. 동포는 몇해전 따스한 계절에 고향을 찾아왔었다.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고향땅을 밟는 그의 감흥은 컸다. 발목이 시도록 고향의 살림집들과 문화후생시설들, 유치원, 지방산업공장 등을 다 돌아보고난 동포는 방문소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고향을 찾아오면서 이렇게까지 변모되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소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도 제힘으로 이처럼 군을 잘 꾸린 고향사람들과 조국인민들에게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

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전변을 안아올 고향의 레일을 말입니다.》

동포가 그때 말한것처럼 오늘 선천군은 전변의 레일을 향해 약동하고있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다층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건설이 한창인 읍지구의 건설장들에서 찾아볼수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군의 일군인 차광철은 우리에게 몇해전 군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선천군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 주시면서 창성이 변했소라는 노래가 있는것처럼 선천이 변했다는 노래가 나오도록 군을 더 잘 꾸릴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그를 위한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고 하면서 지금 군내인민들

이 그 과업관철을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고 말하였다.

그는 한창 추진중인 군건설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읍을 중심으로 하여 군내인민들을 위한 수천세대에 달하는 수백동의 살림집과 지방산업공장들, 문화후생시설 등이 건설된다는것이였다.

듣기만 해도 놀랍고 방대하였다. 벌써 공사는 빠르게 진척되어 어떤 살림집들은 기초콘크리트 치기가 끝나고 골조공사가 진행되고있었는데 건설자들만이 아닌 군내주민들의 열의로 공사장은 들끓고있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선천군 선천읍 165인민반에서 사는 한장영로인을 만나보았다. 로인은 이번에 자기가 사는 아파트도 헐어버

리고 새로 짓게 된다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너무도 고마와 매일 아들며느리와 함께 공사장에 나와 건설자들을 지원하고있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런 모습은 새로 건설되는 편의봉사시설과 경기장, 종이공장, 담배공장 등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었다.

이와 함께 군에서는 지방산업공장들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고있었다. 여기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는 단위는 군식료공장이였다. 공장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설비의 주체화비율을 80%이상으로 높

학과경연에서 우수한 기쁨을 나누는 문미송학생의 가정에서



선천군 약수고급중학교 옥호분교에서



옥호동약수터



한 여성의학자가 걸어온 길

생활의 꽃, 가정의 꽃, 나라의 꽃으로 아름답게 피어나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있는 조국의 복판은 여성들가운데는 70고령의 한 의학자도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립상연구소 소화기내과연구실 실장 박사 부교수 리영은이다. 그는 누구나 쉽게 갈수 없는 과학탐구의 길을 40여년간이나 걷고있다.

얼마전 국제, 국내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체육인들을 취재하는 파정에 활성천연종합광물질 《생명H》를 개발한 리영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그를 만나보기로 하였다.

우리와 마주앉은 리영은은 70살나이이지만 정력에 넘쳐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광물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것은 10년전이라고 하였다. 그는 21세기는 《광물질의 세기》, 《현대유기농법의 세기》로 될것이라는 세계과학계의 발전추세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대담하게 연구



리영은

에 달라붙었다. 그는 조국의 광물분포도를 놓고 사색을 거듭하였다. 하지만 그때 누구도 그가 광산의 버럭에서 좋은 약재를 찾아내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였다. 그 나날 여러 광산들을 발이 닳도록 찾아다니며 광물이 아니라 버럭을 배낭에 지고 연구실로 들어서곤 하던 그였다. 어떤 날에는 버럭에서 광물질성분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느라 시간이 가는줄도 모르고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울 때

도 있었다. 마침내 그는 고심어린 노력끝에 쓸모없이 버려지던 광산들의 버럭에서 8가지 생리활성영양제와 70여종의 광물질이 포함된 《생명H》를 개발하였다. 《생명H》는 면역, 소화기를 비롯한 인체의 모든 계통의 생리적기능을 높여주어 각종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할수 있어 그 효능이 대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에서 지력을 개선하여 소출을 높일수 있어 경제적효과는 더 말할것도 없고 버럭수송문제를 손쉽게 해결할수 있는 전망도 열어놓았다.

《생명H》로 제조된 천연종합광물질강화음료수에 대한 기초시험 및 립상검토성과는 제3차 전국교육부문 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서 1등을 하였다.

지난 기간 리영은의 과학연구사업에서 특징적인것은 조국의 흔한 원료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수 있는 명약을 만들어내는것이였다.

그는 40년전에 벌써 다시마에 대한 연구를 잘해서 인민들

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를 받들고 30여년동안 모든 정력을 다 기울여 다시마짜락약을 비롯하여 다시마복방계양산, 다시마등근알약, 다시마건강차 등을 개발하였다.

그 나날에 있던 가지가지의 이야기를 다 하자면 끝이 없다. 그가운데는 기어이 다시마로 명약을 만들어낼 결심을 안고 동서해안의 여러곳을 다니면서 지역별, 계절별에 따르는 다시마의 성분들을 분석하던 이야기며 직접 다시마를 걷으러 바다로 나갔다가 밀물에 떠밀려 갔던 사실도 있다.

수많은 환자들이 다시마짜락약으로 병치료에서 효과를 보았으니 이제는 학위론문을 써도 되겠다고 사람들이 권고할때면 그는 가볍게 머리를 가로젓곤 하였다.

《조국을 위해 응당 할 일을 하였을뿐이예요.》

이역땅에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막돌처럼 버림받은 자기를 따사로운 품에 안아어엿한 의학자로 키워준 조국이 너무도 고마워 이 땅의 한줌의 버럭도 금싸래기처럼 빛내고싶은것이 그의 진정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누가 알아주건말건 수십년간이나 다시마연구를 거듭하여온 그가 올린 편지를 보여주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리영은이 과학탐구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수 있게 한 원동력이

로 되였다. 우리의것을 더욱 사랑하고 빛내이는 애국의 길을 곳곳이 걸어온 여성의학자는 오늘도 그 길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연구사들과 함께



이고있었다.

공장일군인 리선명은 자기들이 일정하게 성과를 거두고있지만 아직은 전국에 대고 선천이 변했다고 소리칠만큼은 못된다고 하면서 오늘의 성과를 더 큰 성과로 이어갈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을 들을수록 제힘으로 행복을 창조해가는 선천군사람들의 모습이 참으로 돋보이였다. 그런 열의가 보다 강렬하게 느껴지는 곳은 흥건도간석지건설장이였다. 이곳에서는 군과 도안의 건설자들이 힘을 합쳐 흥건도간석지 2단계 3구역의 1차막이공사를 지난해에 완성한데 이어 2단계 총공사를 마감짓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었다. 이 공사가 끝나면 군에서는 수천정

보의 새땅을 얻게 되며 조국의 대지는 더 넓어지게 될것이다.

이런 창조기풍, 창조본때는 우리가 만나본 사람들 누구나가 지니고있었다.

전번의 래일을 위해 끊임없이 약동하고 전진해가는 선천군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그럴수록 신병수동포가 고향사람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해 자기의 모습을 또다시 새로이 하게 될 고향을 다시 찾는다면 얼마나 기뻐하랴 하는 생각을 하며 우리는 다음 취재지로 걸음을 옮기였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상 식

증병을 알리는 가벼운 증세 몇가지

일상생활에서 소홀히 여겼던 증세가 매우 심각한 병의 증상일수도 있으므로 나타나는 증세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① 갈비뼈와 엉덩이사이가 예리하게 아픈감이 들고 이런 증세가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일단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삼가한다. 그래도 아픔이 멎지 않으면 신석이 생겼을수 있다.

② 하루에도 몇차례 설사를 하고 몸무게가 줄어드는 한편 입맛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배탈이 아닐수도 있으므로 이때에는 갑상선기능검사를 통해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가를 검사해보는것이 좋다. 특히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시력과 근육이 약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시 숨이 찬 증세가 나타나며 깊은 잠을 자기 힘들다면 피검사를 통해 알아보아야 한다.

③ 걸거나 달릴 때 다리가 아픈감이 들면 대다수 사람들은 다리근육에 무리가 갔기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

지만 아픔이 뚜렷이 느껴지는것은 심장혈관계통질환의 흔한 증세로서 피출이 좁아져 심장발작이나 뇌졸중발생위험성이 커졌다는 증거로 된다.

④ 먹는것에 상관없이 입을 벌릴때마다 주변사람들이 살짝 얼굴을 찡그린다면 폐질환이나 천식, 입냄새를 풍기는 병에 걸렸을수 있다는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그 위험요소를 50~90%까지 제거할수 있다.



중국 길림성 통화시 동창구인민병원 김명순방 흥도엽동생 앞

보고싶은 동생에게

보고싶은 동생, 밤이 깊어 오. 하지만 왜서인지 잠이 오지 않는구만.

몇해전 중국에서 동생과 만나던 때의 일이랑 그리고 월명동생과의 상봉이랑 눈앞에 신 한게 어디 잠을 이룰수가 있어 야지. 우리가 서로 만나도 보고 편지도 오고갔지만 왜 그런지 자꾸 보고싶구만. 제수와 성학, 미령, 미연이도 그렇고 병화, 춘애도 다 잘 있으리라고 보오.

혈육을 그리는 동생의 심정도 아마 나와 같으리라 보오. 왜 안 그렇겠소. 이제 나나 동생도 나이 80을 바라보고있지 않소.

우린 모두 잘 있소. 동생도 소식을 들어 알겠지만 지난해 1월 우리 집사람의 예순번째 생일을 쇠었소. 그날 평양에 있는 성진이네가 오고 곁에서 사는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손녀들이 다 모이고보니 정말 우리 집안도 대가정이 더구만. 그래 가족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아주 잘되었소. 하지

만 이국에 있는 동생들과 함께 찍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에 절로 눈곱이 젖어드는것을 어쩔수가 없었소.

동생, 그새 우리 가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소. 하지만 자식들은 몹시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소.

동생도 알겠지만 지금 조국에서는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소. 새해 첫 전투부터 조국인민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야만적인 제재와 군사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며 공장과 농촌, 광산과 탄광 등 그 어디에서나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소. 인민들의 그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조국은 올해에도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갈것이라는 확신을 나는 벌써부터 가지게 되오.

지금 자식들의 잡도리부터가 만만치 않소. 그 애들은 신년사과업관철의 성과여부는 자기들 매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가

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말은 일에 여간 극성이 아니요. 특히 아들 성준이와 철이가 자기 앞에 맡겨진 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는 혁신자로 소문을 크게 내고있는것 같소.

언젠가 성준이네집에 가보니 밤이 깊어서야 집에 들어서는 아버지를 손녀 미영이가 노래를 불러 고무해주고있지 않겠소. 자기도 한몫 한다는거요. 얼마나 기특한지.

손녀 미영이도 유치원시절부터 축구를 잘하여 소문을 내더니 이제는 소학교에서는 물론 군적으로도 손꼽히는 선수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있소. 정말이지 우리 가정에서 큰 기쁨은 손녀들인가 보오.

동생, 이제는 내 나이도 많아 그전같지 않지만 난 자식들과 손녀들을 위한 일뿐 아니라 마을을 꾸리고 또 조국의 부강번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일에 남은 생을 다 바칠 결심이네. 그게 이 나라 공민된 의무가 아니겠소.

동생, 하고싶은 말을 편지에 다 쓰자면 끝이 없을상싶소. 언제면 다시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눌수 있겠는지. 조국에 올 기회가 있으면 조카들이랑 다같이 왔으면 좋겠소. 그리고 이 형이 부탁하고싶은것은 건강에 류의하라는것이요. 건강해야 애국사업도 잘해나갈수 있고 우리와도 뜻깊은 상봉을 할게 아니요.

그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이만 펜을 놓겠소.

평안북도 선천군 선천읍 168인민반 흥도술형으로부터



려명거리를 보며



나라의 국력을 규정하는 징표는 결코 인구수나 령토의 크기에만 있지 않다.

나는 이것을 조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질 때마다 깊이 느끼게 된다.

특히 렬명거리를 찾았을 때 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비약하는 조국의 모습, 날로 번영하는 조국의 기상이 한눈에 안겨왔기때문이었다.

모든것이 좋은 조건에서 이런 거리를 일떠세웠다면 감흥이 이다지 크지 않았을것이다.

텔레비죤과 방송을 통해서 알고있었지만 렬명거리건설이 진행될 때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반동들의 핵공격위협과 초강도제재는 극도에 달하였다. 최악의 조건이라고 말할수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위협과 제재도 렬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나가는 조국인민들의 전진을 가로막지 못하였다.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생존권까지 깡그리 말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야만적인 제재압살책동을 산산이 짓부셔버리며 렬명거리건설에 떨쳐나섰다.

그들은 70층살림집골조공사를 단 74일만에, 외벽타일붙이기는 13일만에 끝낸것을 비롯하여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였다.

바로 이 렬명거리건설에서 조국인민들이 일컫는 만리마속도가 창조되었다. 렬명거리건설뿐만이 아니었다. 그 나날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에도 떨쳐나서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선경을 펼치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는 조국의 군대와 인민들이기에 미래과학자거리에 비해 두배가 훨씬 넘는 렬명거리를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떠세웠다.

이런것을 두고 기적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나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다녀보았지만 이렇게 방대한 건설을 제재와 악조건속에서 하는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또 들어보지도 못했다.

후에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것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살림집 및 공공건물설계로부터 전력체계구성 불장식, 원림투화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형성안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었다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지난해에 여러차례나 건설장을 찾으시어 뜻깊은 태양절까지 공사를 완공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렬명거리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눈

에 선히 떠오른다 고, 인민들에게 태양절까지 렬명거리건설을 끝내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것을 지킬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 우리 인민들과 또 하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정말 좋다고 말씀하시었다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렬도는 조국의 군대와 인민들에게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으며 어디서나 만리마속도가 창조되게 하였다. 그 만리마속도에 의해 오늘 조국땅 어디서나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는것이다.

바로 이런 현실은 조국에서만 볼수 있는것이다.

나는 이런 강한 조국을 둔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일심단결과 자강력으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조국의 앞길을 가로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나 조국인민들과 마음을 합쳐 조국의 부강번영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며 재중동포들도 조직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 통일애국사업을 힘차게 벌려나가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최수봉

아름다운 조국



매번 조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바이지만 조국은 어디 가나 그림같이 아름답고 볼수록 정이 드는 곳이다.

나는 이것을 칠보산관광을 통하여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

산과 바다의 뛰어난 풍치로 하여 그 이름 자자한 칠보산, 종

은 계절에 칠보산에로의 관광길에 오른 나의 마음은 즐거움보다도 뜨거움으로 가득찼다.

그것은 언제나 곁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에게 더 마음을 기울이는 어머니심정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들이 칠보산관광길에 오르도록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시었기때문이다.

나이가 들어 칠보산관광길에 선뜻 오르지 못했는데 정작 명승지로 향하니 발에는 나래가 돋친 듯 하였다.

특히 울창한 수림으로 뒤덮인 산밭들과 좁고깊은 계곡들, 기묘한 봉우리들과 기암들,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맑은 물, 장쾌한 폭포와 담소, 바다가의 해안절벽과

기묘한 섬바위들, 사철 샘솟는 온천들로 하여 풍치가 매우 아름다운 칠보산은 걸음걸음 절경이었다.

산천만 아름다운것이 아니였다. 사람들도 아름다웠다.

민박숙소의 사람들은 음식이 입에 붙는가, 불편한데는 없는가 물어도 보며 우리를 한집안식솔 같이 대해주었다. 숙박기일은 짧았어도 정이 폭폭 들었다.

정말이지 친혈육의 감정을 나는 조국에 와서 느끼게 되었다.

나는 경제인으로서 아름다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앞으로 더 많은 일을 찾아하겠다.

재중조선경제인연합회 회원 안미자

우리의 고향

나는 고국을 처음 방문하였다. 고국땅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마치 자기 고향에 온것처럼 순간에 정이 들었다.

따뜻한 봄계절을 맞이한 평야의 거리들은 어디 가나 밝고 깨끗할뿐만아니라 살구꽃, 진달래꽃과 같은 온갖 꽃속에 묻혀 아름다움을 더해주고있었으며 민족적 형식을 갖춘 수많은 건축물들은 도시의 풍격을 높여주고있었다.

고국의 인민들은 누구나 민족옷을 즐겨입고 민족음식들로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있었으며 민속놀이도 적극 장려하고있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한집안식구처럼 따뜻이 대해주었다.

고국을 방문한 기간은 비록 길지 않았지만 그 나날에 나는 조선

민족의 고귀한 넋이 살아있고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민족의 래일이 약속되어있는 이 땅이야말로 바로 조선민족모두의 고향, 우리의 고향이라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일제에게 고향도 나라도 다 빼앗기고 이국땅에 옮겨와 살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고국의 눈부신 오늘을 볼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는 몸은 비록 해외에 살고 있지만 민족의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고 더 눈부신 래일을 향해 만리마의 속도로 비약하며 전진하는 자랑스러운 고국을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살겠다.

그리고 조선민족의 한 성원임을 깊이 자각하고 고국에 더 자주

오며 고국을 위하여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할 결심이다.

끼르기즈스탄고려인통일연합회 량 마르가리따



애국의 한길에서

조국의 전진에 발걸음을 맞추어

절찬받은 어린 재간둥이들

총련 오사까조국방문단 성원들이 총련지부와 상공회들, 학교리사회와 어머니회, 오사까조선가무단 등 20여개 단위들에서 조국방문에 대한 귀환보고모임을 가지였다. 목적은 승승장구해가는 조국의 비약적인 현실을 자신들의 체험담으로 광범한 동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사실 조국방문은 그들에게 있어서 감동과 충격의 련속이였다.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높이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고있는 조국인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가슴가슴은 애국의 열기로 세차게 달아올랐다.

그 나날들을 되새기며 방문단성원들은 걱정을 터쳐놓았다.

조국방문기간 직접 찍은 사진들을 통해 자력자강과 과학기술의 힘으로 빠른속도로 변모되어가는 조국의 현실과 날로 문명한 생활을 누리며 락천적으로 살아가는 조국인민들의 모습을 직관적으로 보여준 총련 기따오사까상공회 총무부장 신동수동포의 강연도 이채로왔고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절대로 맛볼수 없는 마음의 따뜻함을 조국에서 느꼈다는 리상길동포의 체험담도 동포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30년만에 조국을 방문하였다는 김형수동포는 외세의 제재압박에 절대로 굴하지 않고 자력갱생의 힘으로 싸워나가고있는 조국인민들이 참으로 자랑스러웠다고 흥분된 어조로 말하였다.

평양초등학교와 평양중등학교,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을 돌아보면서 조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것처럼 사랑하시며 세상에 부림없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조국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고 걱정을 터친 방문단성원들은 우리들도 애국위업의 생명선인 총련민족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들의 불같은 호소는 동포들의 심장을 애국의 열정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조국방문의 나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조국인민들의 투쟁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돌아온 동포들은 지금 제일조선인운동의 새 전성기를 열어제끼자고 하면서 투쟁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이바라기현 쓰구바시에서 진행된 국제문화교류 행사에서는 총련 이바라기조선초중고급학교 학생들의 출연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였다. 조선민족의 고유한 향취가 풍기는 화려한 민족의상을 입은 이 학교의 나어린 재간둥이들이 무대에 나서자 장내는 삼시에 조용해졌다.

초급부 무용부의 군무 《명절놀이》와 고급부 성악부의 중창 《내 마음 즐거워라》, 중급부 무용부의 군무 《봉선화꽃놀이》 등은 관람자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황홀경이였다. 관람석에서는 연방 요란



민족적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재일동포들

한 박수와 환성이 터졌다. 출연자들은 평시에 예술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에 꾸준히 련마한 자기들의 우수한 예술적기량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흥겨운 노래춤가락속에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과시하고 제일조선인운동의 밝은 미래를 펼쳐보인 공연이였다.

《조선학교 학생들이 조선옷을 차려입고 자기 민족의 아름다운 노래와 춤을 마음껏 부르고 추는 모습에 정말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조선학교 학생들의 공연을 처음 보았는데 민족적인 화려한 무대였다.》, 《보면 볼수록 더 보고싶은 공연이다.》...

공화국과 총련을 반대하는 내의원쑤들의 악랄한 적대시책동속에서도 비판하지 않고 신심과 락판의 노래춤무대를 펼쳐놓은 나어린 학생들의 모습은 일본인민들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행사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본사기자

고려의 풍속

고려시기에는 나라가 하나로 통합된 유리한 사회력사적환경속에서 민족적생활풍습이 보다 공고화되고 그 민족적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우선 민족옷차림풍습에서 민족적성격이 더 강해졌다.

이 시기 여자옷차림은 아래옷이 더 넓어지고 저고리가 짧아지면서 우아하고 부드러운 조선치마저고리의 고유한 형태미가 갖추어지게 되었으며 남자바지저고리도 로동생활과 군사활동에 더 편리하게 간편하고 경쾌한 맛을 나타내게 되었다.

고려사람들은 조선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즐겨온 흰색을 기본으로 하면서 은근하고 부드러운 옷색갈을 많이 리용하였고 비단과 모시, 베와 같은 다양한 옷감들을 리용하여 민족옷차림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려나갔다.

12세기초의 송나라사람 서공이 자기의 저서 《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 고려의 모시는 《깨끗하고 흰것이 구슬같다.》라고 찬탄한것만 보아도 고려사람들이 만든 모시옷감이 얼마나 희고 윤기있었는가를 잘 알수 있다.

또한 고려시기 식생활풍습에서도 민족적성격이 보다 강화되었다.

고려사람들은 국과 같은 음식을 즐기면서 숟가락을 많이 쓰는 식생활관습을 지켜왔으며 국수, 두부와 같은 음식들을 만들어먹으며 조선민족의 음식문화를 더욱 풍부히 하였다.

이뿐아니라 12세기초 송나라사람 손목이 쓴 《계림유사》를 비롯한 여러 문헌들에 여러가지 장에 대한 기록이 있는것으로 보아 이 시기 장도 다양하게 발전하여왔다는것을 알수 있다.

고려시기에는 특별음식으로 당과류도 발전하였는데 고려의 유밀과는 원나라에까지 보급되어 《고려떡》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고려시기 주례생활풍습에서도 민족적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온돌이나 벽체, 지붕재료들이 더욱 발전하였다.

《선화봉사고려도경》을 비롯한 여러 문헌들에 온돌에 대한 기록들이 보이는것은 그것이 널리 보급되었음을 잘 알수 있다.

고려사람들은 지붕재료도 짚, 돌, 기와 등 다양하게 썼는데 특히 유명한 청자의 발전과 함

께 청기와를 구워내어 지붕장식을 화려하게 하였다. 청기와나 전면구들의 도입은 고려인민들의 창조적지혜의 산물이었고 우수한 민족건축유산의 하나로 되었다.

또한 고려인민들의 민속명절맛이풍습에서도 민족적성격이 보다 뚜렷해졌다.

고려사람들은 이미전부터 즐겨오던 설명절, 정월대보름, 동지와 같은 다양한 민속명절을 해마다 즐겁게 쇠면서 민속놀이와 민속예술을 발전시켜왔다.

고려사람들은 상무적기풍이 강하였던 고구려의 생활풍속을 계승하여 활쏘기와 말타기, 수박, 격구, 씨름과 같은 체력단련놀이를 즐기어왔다. 그것은 고려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활쏘기를 즐기고 그 기술을 편마하기 위해 밤에는 과녁을 세워놓고 그우에 초불을 밝히어 맞히게 하였다는 기록을 보면 알수 있다.

고려사람들은 씨름을 잘하는 사람을 《용사》라고 하면서 씨름도 즐기었는데 민속명절들에 씨름경기를 하였다.

민속명절날에는 고려인민들의 생활과 정서를 잘 반영한 흥겨운 노래와 춤가락들이 펼쳐지곤 하였으며 수도 개경에서는 국가적인 명절의식으로 산대잡극이라는 민간예술인들의 종합적인 예술공연도 진행되곤 하였다.

이처럼 고려시기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인민들은 하나의 통일된 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서의 고유한 민족적정서와 지향, 성격을 반영하여 민족적생활풍습을 더욱 발전시켜왔으며 그 문화성과 우수성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윤광혁

조선속담 (흥보기)

-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가랑잎이 솔잎보다 더 큰소리를 내면서도 오히려 솔잎더러 바스락소리를 낸다고 한다는 뜻으로 자기 허물은 모르고 남을 흥보는것을 비웃어 이르는 말.
- 내 말은 남이 하고 남 말은 내가 한다
흔히 제 허물을 제쳐놓고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는 뜻으로 이르는 말.
- 달아댐인 돼지가 누운 돼지 나무란다
더없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저보다 나은

사 화

제 눈을 스스로 찢어버린 화가

조선속담에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사람의 몸에서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특히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게 있어서 더 말할나위없이 소중한대.

그런데 세상에는 스스로 제 눈을 찢은 화가가 있다.

최북(풍경화를 잘 그려 18세기 우리 나라 화단을 장식한 화가의 한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최북은 재능있는 화가였으나 경력이 알려진것이 없다. 다만 몇몇 책들에 남아있는 단편적인 기록들과 일화들을 통하여 화가로서의 그의 인품과 재능을 짐작할수 있을뿐이다.

최북은 화초, 새, 짐승, 돌, 나무 등을 자유분방한 필치로 붓을 휘둘러 그리는데도 능하였고 풍자적인 그림도 재간있게 그렸으나 사람들은 산수를 잘 그린다고 하여 그를 최산수라고 불렀다.

어느날 금강산 구룡연에 찾아간 최북은 그 절묘한 경치에 넋을 잃다싶이 하였다.

그는 흥에 겨워 취하도록 술을 마셨다. 볼수록 아름답고 황홀한 자연풍경에 심취된 그의 마음은 즐겁다 못해 열광적인 격정으로 뒤번졌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던 그는 문득 구룡연 바로 가녁에 다가서며 《천하명인 최북이 마땅히 천하명산에서 죽으리다.》 하고 큰소리로 웨쳤다. 그는 막 물에 뛰어들려는 순간에 그 주변사람들의 눈에 띄워 구원되었다.

이처럼 조국의 자연을 끝없이 사랑한 최북은 산수화에 대하여 아는척 하며 조금만 흐지부지하여도 참지 못하였다.

한번은 어떤 사람이 값비싼 비단을 가지고와서 여기에 산수화를 그리되 수려한 산을 감도는 물을 그려달라고 하며 거만하게 행동하였다. 이를 아니 짧게 본 최북은 비단폭에 산만 그리고 물은 그리지

않았다. 그림을 부탁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왜 물은 그리지 않고 산만 그렸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허! 그림밖은 모두 물인데...》 하고는 붓을 던지고 일어났다고 한다.

성품이 강직한 그는 아침하는것을 극도로 증오하였고 그 어떤 경우에도 권세앞에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

언젠가 정승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 정승은 호화롭게 꾸민 넓은 대청에 그를 불러앉히고 커다란 병풍을 짝 퍼놓으며 병풍에 자기가 좋아하는 신선그림을 그려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최북은 《황송하오나 소인은 신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하였으니 신선도를 그릴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정승은 성이 꼭뒤편까지 치밀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놈, 내가 그리라면 그릴것이지 어느 령이라고 못하겠다는 소리를 하느냐.》

《소인은 신선을 그릴줄 모릅니다.》 정승은 죽이겠다고 으레매였다.

최북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되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을 천한 신분이라고 하여 사람대접도 제대로 하지 않는자들에 대한 쌓이고 맺힌 원한과 분노가 극도에 이른것이였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붓대를 더듬어잡고 장수가 칼을 뽑아들듯이 눈앞에 번쩍 쳐들었다.

그리고는 그 붓대로 자기의 한쪽 눈을 짝 찢었다. 피가 흘렀다. 그리고는 또박또박 점을 찍듯이 말하였다.

《나에게 이 눈이 없다면 다시는 신선그림을 그리라고 하지 못할줄로 압니다.》

세도정승도 일이 이렇게까지 될줄은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그는 방문을 광 닫고 나가버렸다.

최북은 자기의 인격과 화가의 량심을 지키는 힘겨운 싸움에서 제 눈을 바치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승리하였다.

사람들은 그후 그를 《애꾸눈 최칠칠》 혹은 《최오수》라고 불렀다. 그는 늘 색안경을 끼고있었는데 그때는 색안경을 《오수경》이라고 하였던것이다.

한눈을 잃은 최북에게는 세상이 몹시 어두웠다. 봉건사회는 이 재능있는 화가의 눈에서 광명을 빼앗은 칠칠야밤과 같은 암흑세상이였다.

* * *

노래 《봉선화》와 흥란파



흥란파(1897년-1941년)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하였다.

조선정악전습소에 입학하여 성악과 바이올린을 배운 그는 주체3(1914)년부터 그곳에서 교편을 잡고 후대교육에 전심하였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흥란파의 음악활동은 여러 분야에 걸쳐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는 창작을 하는 한편 아직 미개척분야였던 평론을 적지 않게 하였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신문, 잡지들을 통하여 리론활동을 벌였으며 《음악만필》을 편집출판하여 음악계몽사업에 도움을 주었다.

뿐만아니라 잡지 《음악계》를 출판하고 기악연주활동을 널리 진행하였으며 교육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이었다.

그의 창작활동은 주로 1920년대 초부터 193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에 진행되었는데 이 시기 수십편의 서정가요와 여러편의 합창곡, 기악곡, 100여편의 동요곡들을 지었다.

그는 대중적인 음악형식을 통하여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애국적 감정을 반영하려는데로부터 주로 성악곡을 많이 창작하였다. 특히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덜 미치고있는 아동가요를 통하여 인민들의 민족적의식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으로부터 아동가요창작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그의 노래들은 대부분이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의 현실에 대한 슬픈 감정과 자기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어린시절에 대한 추억 등을 주제로 하고있다. 또한 음악형상도 애수적이고 비통한 정서로 일관되어있는것이 일반적특징으로 되고있다. 민족적정서가 짙고 인민들의 애국적인 사상감정을 소박하게 체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의 작품은 당시의 청소년학생들과 인민들을 반일애국사상으로 불러일으키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서는 《봉선화》와 《성불사의 밤》, 《옛 동산에 올라》 등을

들수 있다. 《봉선화》는 일제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힌 민족의 운명과 슬픔을 노래한 서정가요이다. 노래에는 울밀에 처량하게 서있는 봉선화의 형상을 통하여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과 민족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울분과 비애의 감정을 은유적인 형상수법으로 보여주고있다. 가요는 소박한 음조와 장단의 규칙적인 반복, 비교적 잘 짜여진 형식구조와 서정성으로 하여 작품의 기본내용을 음악적으로 잘 표현하고있다.

흥란파는 창작과 연주, 교육과 평론 등 여러가지 음악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나라 음악발전에 기여를 한 선구자의 한사람으로 되었다.

* * *

총각김치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의 훈향이 감도는 3월이 가까와오니 지난해 이맘때 《민족의 향기》란에 소개하였던 달래김치가 먼저 떠오릅니다.

지난해 4월 조국을 방문하였던 한 재중동포는 우리에게 달래김치가 소개된 《금수강산》잡지를 잘 읽었다고 하면서 그 기사를 보고 자기 집사람이 달래김치를 만들어 온 가족이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이야기하였었습니다.

몸은 비록 해외에 살고있어도 역시 조선사람들은 많은 음식들가운데서도 조선김치맛을 으뜸으로 꼽고있는것입니다.

그의 말을 되새기며 우리는 이번호에 여러 김치가운데서 총각김치에 대해 이야기해볼가 합니다.

아마 나이많은 해외동포들은 총각김치에 대해 잘 알고있을것입니다.

옛 문헌인 《산림경제》에는 총각김치는 첫서리가 내린 후 미처 자라지 못한 무우를 뿌리와 잎이 붙은채로 절구어 마늘즙으로 양념하여 익혀먹는 겨울짠지(무우, 오이, 마늘 및 그밖의 남새를 소금이 나 장에 담고어 국물없이 짜게 익힌 김치)의 일종이라고 써여있습니다.

늦가을에 밭에서 채 자라지 못한 어린 무우를 잎이 붙은채로 캐서 소금에 절구었다가 고추, 고추잎과 줄기를 같이 두고 독에서 익힌 후 봄에 꺼내 먹는 총각김치의 맛은 통배추김치나 석박김치, 보쌈김치에 못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의 산간지방은 벌방지방보다 추위가 일찍 시작되므로 무우를 비롯한 김장남새가 잘 자라지 못하는 지역적특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은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량강도, 함경남북도사람들이 채 자라지 않은 무우를 밭에서 수확하여 총각김치를 담고어먹었습니다.

총각김치는 기온이 찬 산간지대 주민들속에서 먼저 담고어먹기 시작하다가 그 맛이 좋고 또 음식감을 얻기가 쉬울뿐아니라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므로 인차 전국에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총각김치만드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기로 합시다.

무우는 잎이 붙어있는채로 상하지 않게 잘 씻은

후 소금을 뿌려 절입니다.

멸치젓은 같은 량의 물을 부어 끓인 다음 채에 받습니다. 젓갈은 여러가지로 쓸수 있습니다.

잘 절여진 무우를 물에 살짝 행구어 물기를 짜운 다음 고추가루, 파토막, 다진 마늘과 생강, 멸치젓 국물을 두어 버무립니다.

이것을 단지에 넣고 푹푹 누른 다음 뚜껑을 덮어 익힙니다.

가을에 캔 어린 무우는 물론 봄에 캔 크지 않은 빨간무우로 담근 총각김치는 그것대로 별맛입니다.

빨간무우로 총각김치를 만드는 방법은 가을에 담그는 총각김치와 별로 다름바 없습니다.

다 익은 총각김치는 그 어느 김치맛에도 비길데 없이 독특하면서도 산뜻하고 시원하며 쫄면 맛이 나는것이 특징입니다.

한겨울에 통배추김치며 석박김치, 보쌈김치, 깍두기 등을 즐겨먹던 사람들도 봄계절에 총각김치맛을 본다면 아마 저도 모르게 환성을 올릴것입니다.

동포여러분, 이제 빨간무우가 나오기 시작하면 잊지 말고 가정들에서 총각김치를 만들어 잡수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기 집사람이 만든 총각김치는 무우의 쫄면 맛과 무우잎의 씹쌀하면서도 독특한 맛이 어우러져 봄계절에 입맛을 돋구는 좋은 음식이 될것입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옥

상 식

색에 대한 정서

우리 민족의 정서에 굳어진 색은 두가지이상의 색이 혼합된 은근하고 부드러운 간색이다.

원래 우리 선조들은 울긋불긋한 원색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것은 산수수려한 우리 나라의 자연이 그대로 원색이었으므로 구래어 일상 생활속에 원색을 끌어들이 필요를 느끼지 않은것과 관련된다.

고려자기의 우수성이 은근한 색상에 있듯이 우리 민족의 공예품, 미술품들은 모두 깨끗하고 은근한 색상때문에 더욱 돋보인다.

옛 문인들의 시조나 그림들에 안개와 달, 구름과 같은 자연현상을 담은것은 있어도 태양을 형상한것은 극히 적은데 이것은 은근한것을 좋아하는 민족적정서를 반영한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달을 그러도 한줄기의 구름이 살짝 비끼게 하거나 나무가지로 가리워 그 부드러움을 강조하였다.

전통기와집 역시 이러한 색조화를 이루고있다. 전통기와집은 곡선미를 그리며 뻗어나온 처마가 있어 그늘을 보장해주는 완충작용을 한다.

조선종이를 바른 장지문도 태양빛의 직사광을 차단시켜 은근한 빛으로 방안을 밝게 한것이다.

이러한 색정서만으로도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의 고상함과 슬기로움을 다시한번 느낄수 있다.

* * *

조국의 천연기념물 (14)



맹산검은소나무림

평안남도의 천연기념물들에는 또한 맹산검은소나무림, 안국사은행나무, 성천온천, 대흥사향노루 등이 있습니다.

맹산검은소나무림은 평안남도 맹산군의 동지산기슭에 있습니다. 면적은 약 220정보나 됩니다. 이 소나무들은 북방에만 퍼져있는 특징적인 식물로서 우리나라에서 이곳에만 있는 유일한 소나무이므로 학술적으로 의의가 큼니다. 그러므로 이 나무숲은 맹산검은소나무(흑송)보호구로 설정되고 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검은소나무들은 약 300년 전에 옮겨 심은 것으로서 울창한 숲을 이루

고 있습니다. 나무들의 평균 높이는 16m, 최고높이는 25m, 가슴높이직경은 55~110cm입니다. 그리고 나무갓직경은 보통 8m이고 최고는 11m입니다. 나무들의 높이 12m아래 줄기는 가지들이 없이 매끈하며 껍질은 어두운 밤색을 띠고 있습니다. 잎은 날카롭고 뽕죽하며 길이 9~17cm, 너비 1.5mm정도로서 적송보다 크고 5월에 자라기 시작하여 그 다음해 10월 하순에 떨어집니다. 꽃은 한나무에서 암꽃과 수꽃이 다같이 5월 중순에 핍니다.

맹산검은소나무는 40~50년까지는 빨리 자라나 그후부터는 더디게 자랍니다. 수명은 400~500년입니다.

안국사은행나무는 평안남도 평성시 봉학동에서 북서쪽으로 약 4km 떨어진 봉린산의 남쪽기슭에 있는 안국사앞마당에 있습니다.

나무는 크고 오래자란 나무로서 학술적으로나 풍치상으로 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천연기념물

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1400년경에 심은 이 나무의 높이는 27m이고 밑둥둘레는 10m이며 가슴높이둘레는 9m, 나무갓직경은 18m입니다. 나무의 상태는 비교적 좋으며 원가지는 10여개입니다. 첫 원가지는 5m 높이에서 뻗어있는데 늘어져있으며 남쪽으로 가지가 많이 뻗어 있습니다. 나무에는 해마다 100kg 정도의 열매가 달립니다.

성천온천은 평안남도 성천군 온정리에 있습니다. 성천역에



안국사은행나무

서 서북쪽으로 약 16km되는 곳에 있습니다. 온천은 여러곳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중 지금 쓰고있는 온천의 광물질 총량은 262.9mg/L, 메타규산은 86.64mg/L, 총 류화수소는 3.06mg/L이고 라돈의 비방사능은 618.9Bq/L입니다.

주요이온성분으로는 수소탄산이온, 나트륨이온이 기본으로 되고있으며 온도는 45.5℃, pH는 8.7, 하루용출량은 0.64m³입니다.

알카리성의 이 온천은 피부연화, 염증없애기, 재생촉진, 위분비조절, 뱀의 분비 및 운동조절, 대사촉진, 혈액순환강화, 말초신경기능강화, 진정, 진통작용 등이 있습니다. 만성위염, 고노산혈증, 통풍, 동맥경화증, 여리가 지 원인의 만성골관절질병, 신경통, 신경염, 외상 및 수술후유증 등에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대흥사향노루는 평안남도 대흥군의 대동강최상류일대에 퍼져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세계적으로 그 마리수가 점차 줄어들고있어 보호대상동물로 되어있는 사향노루가 분포된 대표적인 지역의 하나이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



대흥사향노루

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동쪽, 남쪽, 북쪽이 해발높이 1700m이상 되는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 산악지대이면서도 강을 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곳곳에 바위벼랑과 등관들이 있으며 누운잣나무, 누운층백나무를 비롯하여 떨기나무들과 이끼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 산림, 수문, 먹이조건은 사향노루의 생활에 적합하므로 오래전부터 많은 사향노루들이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김형직사범대학 강좌장 백현성

야화 어린 재판관

어느날 한사람이 며칠동안 풀밭에 매어두었던 송아지를 끌고 집으로 가고있었다. 바로 이때 다른 한사람이 송아지를 끌고가는 사람을 쫓아오며 자기의 송아지라고 하는 것이었다.

옮겨니그르거니 하며 서로 다투던 두 사람은 원에게 송사를 하였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원은 그들에게 송아지의 크기며 색깔, 생김새 등을 물어보았다.

두 사람의 대답이 일치하자 원은 이를 해결할 도리가 없었다. 원에게서 해결받지 못한 두 사람은 밖

으로 나와서도 옥신각신하였다.

두 사람은 서당근방에 이르자 이번에는 훈장에게서 해결받자고 하였다. 그들이 서당에 들어서니 훈장은 어디 가고 없었고 아이들끼리 사또, 좌수 등 나이먹은 순서로 벼슬을 정해놓고 놀음판을 벌려놓고있었다. 기왕 들어온바엔 아이들한테서라도 시비를 가려보자고 사또자리에 앉아있는 큰 아이에게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사또》도 판단을 내리기 힘들어하였다. 이때 일곱살 난 한 아이가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사또자리에 앉은 일곱살 난 아이는 《소임자 두 사람을 데려다 세워라. 그리고 송아지고삐를 풀어 주고 엉덩이를 때려라. 그다음 송아지가 뛰어가는 뒤를 쫓아가보아라.》 하고 령을 내렸다.

송아지는 이 꼴목, 저 꼴목을 돌아 어느 집 외양

간으로 들어갔다. 그 집에서는 이제야 송아지를 찾았다고 기뻐하였다.

송아지임자가 판명되자 《사또》는 《아전》들에게 가짜송아지임자를 불러들여 남의 송아지를 험잡하여 자기 송아지로 만들려고 한 죄로 불기를 치라고 령을 내렸다.

이때 순행을 돌던 한 어사가 그 광경을 보던중 기침이 나와 《에쿠-》 하는통에 《사또》의 얼굴에 침이 튀었다. 그러자 《사또》는 《이자를 끌어내어 얼어놓고 처라.》 하고 또 호령하였다.

뜻밖의 봉변으로 실컷 매를 맞고난 어사는 《사또》의 지혜를 시험해보려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한곳을 지나는데 갑자기 사람 살려달라고 하며 한 아이가 숨가삐 달려오지 않겠니. 그 애가 말하

기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재물에 욕심이 난 계모가 하인들을 시켜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구나. 그래서 나무숲에 얼른 엎드려 숨으라 하고 난 그대로 길을 가는데 몽둥이를 들고 애를 뒤쫓아온 장정 십여명이 그 아이가 간 곳을 대라고 올리메지 않겠니. 내 몸까지 위태로와 할수없이 난 대주었는데 이런 때 다른 방도는 없겠느냐.》

《목숨이 그렇게도 아깝더냐. 그럴 땐 소경노릇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자가 두번 죄를 지었으니 그 죄 크도다. 불기를 더 쳐라.》

어사는 두번 봉변을 당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지혜있는 어린 《재판관》앞에서 어사도 가짜소임자도 그 판결에 순종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 * *

평화적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평안북도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4)

- 구성남문 -

일명 위원루, 진남루, 완대루라고도 부르는 구성남문은 평안북도 구성시의 북쪽에 솟은 리구산 밑에 남쪽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구성남문은 994년 구주성을 쌓으면서 세운것인데 1702년 성벽을 고쳐 쌓으면서 이 남문도 다시 지었습니다.

구성남문은 구주성의 8개 성문 가운데서 제일 규모가 크고 건축술이 우수한 정남문입니다.

구성남문의 축대는 네모나게 다듬은 질 좋은 화강석으로 쌓고 그 북쪽에 무지개문길이 나 있습니다. 축대는 무지개문길이 뚫린 부분에서 안으로 조금 들어쌓아 그 역세기를 높였습니다.

축대위에 세운 2층문루는 정면 3칸(10.7m), 측면 3칸(10m)의 방형평면의 장중한 건물입니다.

두공은 포식으로 하고 1층에서

는 3포로, 2층에서는 바깥 5포, 안 7포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둥사이포대신에 화반을 놓은 흔치 않은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에는 룡마루의 길이가 비교적 짧은 합각지붕을 이었습니다. 문루에는 5색이 아롱진 모루단청을 하여 그 건축미를 돋구었습니다. 문루의 주춧돌 가운데서 북편의 남쪽 주춧돌 2개는 거북기를 형상한것입니다. 그 길이는 1.73m, 너비는 1.14m, 높이는 0.6m이며 조각솜씨가 매우 우수합니다.

구성남문은 외래침략자들을 쳐물리치는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문은 여러차례의 싸움에서 단 한번도 적들에게 돌파당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민들의 용감성과 함께 성시설의 견고성



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미제의 야수적폭격에 의하여 파괴되었던 구성남문을 원상대로 복구하여 후대들에게 우리 조국의 고귀한 문화유적과 선조들의 재능있는 솜씨를 보여주어 민족적공지감을 가지도록 할데 대하여 교시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구성남문은 주체 68(1979)년에 원상대로 복구되었습니다.

구성남문은 선조들의 슬기로운 애국적투쟁과 성문의 건축기교의 우수성으로 하여 국보적유적으로 보존관리되고있으며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리용되고 있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신년사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남사이의 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부터 마련 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하나의 피줄과 언어를 가지고 한강토우에서 찬란한 문화를 빛내이며 살아온 우리 겨레가 민족분렬의 상처를 입고있는지도 장장 70여년이 나 된다.

이 기나긴 세월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통일의 밝은 아침을 맞이하기를 일일천추로 바랐건만 북남관계는 아직도 풀기 어려운 경색국면에 처해있고 조선반도에는 검은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국토량단의 비극을 종식시키고 민족적번영과 발전을 이룩하자면 통일의 동반자인 북과 남이 긴장과 격화, 대결의 국면에서 벗어나 평화통일을 지향해나가야 한다.

지난 시기 북과 남은 서로 힘을 합쳐 오해와 불신, 대결관념에서 벗어나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에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북남관계발전과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불멸의 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되고 그 기치아래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 훌륭한 결과를 가져왔다.

북남사이에 여러차례의 군사회담들이 진행되고 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을 위한 군사적담보조치들이 취해지는 속에 서해해상에서 우발적충돌을 방지하고 군사분계선지역에서 상대방에 대한 선전활동중지 및 선전수단제거를 위한 사업들이 진척되었다.

북과 남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마련된 이러한 성과들은 나라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마련하였으며 결과 6.15주통일시대의 위대한 화폭이 펼쳐지게 되었다.

현실은 북과 남이 노력하면 북남사이의 침예

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미국의 끈질긴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적극 추종해온 보수《정권》의 반통일적인 책동으로 인하여 초래된 북남사이의 군사적긴장상태와 조선반도에 조성된 일촉즉발의 핵전쟁위험을 가시는것은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선차적인 과제로 나서고있다.

지금처럼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 속에서는 북과 남이 서로 마주앉아 관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할수도 없으며 통일을 위하여 곧바로 나아갈수도 없다.

오히려 그것은 나라의 통일은 고사하고 불신과 대결만을 더욱 격화시킬뿐아니라 외세가 강요하는 핵전쟁의 참화만을 가져올뿐이다.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의 운명과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미국의 무모한 북침핵전쟁책동에 가담하여 정세격화를 부추기지 말아야 하며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화답해나서야 한다.

이 땅에 화염을 피우며 신성한 강토를 피로 물들일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연습을 그만두어야 하며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를 걷어치워야 한다.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해도 이제는 우리 조국에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으므로 하여 어찌지 못한다.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나갈수 있으며 이 땅위에 평화롭고 부강하는 통일국가를 반드시 세우게 될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북남사이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기운을 더욱 고조시킴으로써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여야 할것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철

파멸을 불러오는 무력증강

군사적 힘으로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남조선을 행각하면서 전략자산들의 조선반도순환배치를 확대, 강화하기로 하였는가 하면 공화국에 대해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 하겠다느니, 《힘의 시대》니 하며 폭제의 힘으로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실현할 흥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미국은 태평양작전지역에서 활동하던 《로날드 레간》호, 《니미즈》호, 《시어드 루즈벨트》호 핵항공모함타격단을 조선반도수역에 기동전개하고 일본, 남조선피괴들과 함께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하였다.

이어 미국은 남조선에서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전쟁연습인 련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사상 최대규모로 벌여놓았다.

훈련에는 1만 2 000여명의 미군병력과 8개 군사기지에서 발진한 《F-22랩터》, 《F-35A》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한 230여대의 전투기가 투입되었다.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 가네나공군기지에 배치되어있는 《F-22랩터》스텔스전투기들이 동시에 조선반도에 전개되는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훈련이 태평양지역에서 미공군의 위력파시로 된다고 내놓고 떠들었다.

남조선 전지역에서 수많은 전투기들이 공화국의 국가지도부와 핵 및 탄도로켓기지, 비행장, 해군기지 등 주요대상물들, 전선부대들의 지휘소와 장갑기재 및 유생력량과 장거리포병부대들을 타격하기 위한 훈련을 비롯하여 북침전면전을

가상한 훈련을 진행하였다.

특히 미국은 첨단 스텔스전투기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공화국의 국가지도부와 중요핵심시설들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둔 초정밀타격훈련을 실전과 같이 강도높게 벌여왔다.

미국이 전쟁연습을 구실로 들이미는 전략자산들은 선제공격을 위한것이다. 그것들이 쓸어드는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긴장이 격화되고 나중에는 군사적침공과 류혈적인 사태가 빚어지곤 하였다. 미국이 《F-22랩터》스텔스전투기들이 레이다감시망을 쉽게 뚫고 주요시설에 대한 정밀타격이 가능하다고 떠들고 조선의 반항공망이 촘촘한데다 첨단화된 점을 고려하여 레이다 회피능력이 높은 《F-35A》 등 스텔스전투기의 동원필요성이 더욱 커질것이라고 한것만 보아도 전쟁연습의 도발적성격을 가히 짐작할수 있다.

미국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 선제공격기능을 갖춘 전쟁장비들을 자주 집결시키고 핵전쟁연습소동을 최대규모로 련속 벌여놓는것은 공화국을 힘으로 어찌보려는 그들의 호전적기도가 위험계선을 넘어섰다는것을 말해준다.

내외여론들이 트럼프패거리들의 정신병적인 광태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정세가 예측불가능한상태에로 치달고있다고 심각한 우려와 불안을 표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엄연한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는 기본장본인이고 세계평화의 교란자이며 공화국을 기어이 군사적으로 압살해버리려는 미국의 흥심은 변함이 없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무분별한 무력증강은 저들의 자멸을 재촉할뿐이다.

공화국은 이미 미국본토전역을 타격할수 있는 초대형중량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또 하나의 신형대륙간탄도로켓무기체계까지 보유한 세계적인 로켓강국, 핵강국의 지위에 올라섰다.

만일 공화국의 달라진 전략적지위를 바로 보지 못하고 모험적인 군사적대결소동에 매달린다면 그것은 미국의 비참한 종말로 될것이다.

본사기자 전룡진

드러난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의 내막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2015년 12월 박근혜당은 일본과 회담이라는것을 벌여놓고 일본군성노예문제의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을 골자로 하는 《합의》라는것을 발표하였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인정과 공식사죄, 법적배상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단지 그 무슨 《지원재단》이라는데 일본이 몇푼의 돈을 내고 그 대가로 남조선당국이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더 이상 문제시하지 않는것으로 되어있다.

성노예피해자들은 《왜 일본과 짝자꿈이하여 우리를 두번, 세번 죽이려 하는가.》고 울분을 터치였고 야당들과 각계층인민들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몇푼의 돈과 바꾼 협상》, 《일본의 과거죄악을 무마시킨 매국협상》이라고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협상과정의 공개와 《합의》무효화를 요구하는 대중적투쟁에 걸기해나섰었다.

급해맞은 박근혜일당은 저들의 반역적처사를 뻔뻔스럽게도 그 무슨 력사발전에 대한 《기여》로, 《외교적성과》로 둔갑시키면서 치욕스러운 매국협상과정을 계속 숨겨왔다. 지어 《합의》의 리행만이 성노예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셔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얼빠진 수작질까지 해댔었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위한 남조선인

민들의 투쟁에 의해 박근혜당이 어떻게 하나 덮어버리려 했던 전대미문의 친일매국범죄의 내막은 여지없이 폭로되었다.

지난해말 남조선의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검토단체는 박근혜 《정권》이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체결한 성노예문제 《합의》가 《비공개고위급협의를 통해 타결된 밀실합의》였다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당시 박근혜당은 성노예범죄에 대한 일본의 법적책임을 무마해주고 내외여론의 반발을 누잠할수 있는 방안을 일본반동들과 모의하면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것을 요구하는데 대해서도 동조해나섰으며 일본대사관앞에 있는 성노예소녀상을 어떻게 치우겠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라는 일본의 강요에 대해서도 면박을 줄대신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얼버무리었다.

그리고는 저들의 친일매국행위의 진상이 폭로되는것이 두려워 《합의》내용을 숨기는 비렬한 망동까지 부리였지만 그 추악한 범죄의 내막은 끝내 드러나고야말았다.

분노한 남조선의 각계층인민들은 《박근혜범죄자가 저지른 사대매국행위의 진상이 날날이 드러났다.》, 《초불의 명령이다. 매국적인 〈합의〉를 즉각 파기하라.》고 웨치면서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의 전면무효화와 관련자엄벌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지금 재판장에도 나오지 않으면서 오만불손하게 놀아대는 박근혜역도를 천추에 용납 못할 친일매국범죄까지 따져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것이 남조선민심의 목소리이다.

남조선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의 진상공개로 여론이 끓자 미국은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남조선과 일본의 그 무슨 《화해와 상호신뢰, 접근》을 운운하는가 하면 쌍방의 《강력한 관계를 추구하는 노력을 환영》한다고 떠벌이면서 갈등이 심화되는것을 막아보려고 발광하고있다.

원인은 어성버성해지는 남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시급히 바로잡고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구축을 다그치려는 흥심의 발로이다.

또한 박근혜당이 일본과 성급하게 외교당국자회담을 벌여놓고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사상최악의 굴욕 《합의》를 꾸며내게 한 장본인이 다름 아닌 미국이었기때문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를 박근혜일당이 미일상전들과 공모결탁하여 조작해낸 사상 류례없는 매국문서로 락인하면서 보수패거리들은 물론 미국과 일본반동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를 금치 못하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에 미쳐 날뛰는 역적배들에게 차례질것은 수치와 종국적멸망뿐이다.

본사기자

미국의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



오늘도 울려오는 합성소리

조선민족의 반제민족해방투쟁사에 뚜렷한 페이지를 기록한 3.1인민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이제 한세기가 다 되어오고있다.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민족의 독립을 소리높이 웨치며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섰던 그날의 거레의 합성소리는 오늘도 울려오고있다.

돌이켜보면 주체8(1919)년 당시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는 조선민족으로 하여금 전민족적인 3.1인민봉기를 일으키게 하였다.

3.1인민봉기는 일제의 군사적강점기간의 야만적인 통치하에서 모진 수모와 학대를 받으며 살아온 조선민족의 쌓이고쌓인 울분과 사무친 원한의 폭발이었다.

그날 평양에서는 낮 12시에 종소리를 신호로 수천명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이 장대재에 있는 승덕녀학교운동장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조선이 독립국가임을 선포한 다음 《조선독립 만세!》,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웨치며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리었다. 시위대렬이 거리로 밀려나오자 수만명의 군중이 이에 합세하였다.

유모아

다른 사람을 위해

어머니가 크게 화를 내며 아들을 책망했다.

《지난해엔 내가 시험을 잘 쳐서 내가 기뻐터렸는데 이번엔 어떻게 된 일이나?》

《나만 매년 1등을 하면 다른 아이들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겠어요?!》

* * *

경성(오늘의 서울)에서는 고종의 장례식을 보려고왔던 지방에서 올라온 농민들까지 합세하여 수십만군중이 결사적인 시위를 벌리었다.

평양과 경성에서의 시위를 발단으로 봉기는 전국의 13개 도를 휩쓸었고 만주와 상해, 연해주, 하와이 등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에게까지 파급되어 전민족적인 항쟁으로 번져갔다. 민족적량심을 가진 조선사람들은 직업, 신앙, 남녀로소의 구별이 없이 누구나 이 봉기에 참가하였다. 이것은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존엄있게 살려는 조선인민의 절절한 념원의 분출로서 지극히 당연한것이였다.

하지만 일제는 조선인민의 이 정당당당한 3.1인민봉기를 《폭력집회》, 《란동시위》로 몰아붙이며 헌병과 경찰, 일본군과 재향군인 등 무력이란 무력은 총동원하여 무차별적으로 탄압하였으며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일제의 야수적인 살륙만행으로 하여 1919년 3월부터 5월말까지의 기간에만도 4만 6 900여명의 애국자들과 인민들이 검거 투옥되고 1만 5 900여명의 부상자가 났으며 7 500여명이 무참히 학살당하였다.

당시 일제의 만행이 어찌나 잔악하였던지 일제의 한 어용학자까지도 《일본인들은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탄압에 광분하였다. ...일본헌병의 포악성은 형언할수 없으며 그들은 늙은이와 부녀자, 어린이들까지 총검으로 찢러죽이고 목을 달아매어 죽이였다.》라고 실로 하였다.

사실이 이리함에도 일본은 지금 피로 얼룩진 과거력사를 외곡하면서 3.1인민봉기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을 비롯한 대중적학살만행과 그외의 모든 죄행들을 전면부정하고있다. 일본은 오히려 저들이 그 무슨 《근대화》를 도왔다는 등 얼토당토않은 나발을 불어대고있다. 그리고 신성한 조선의 령토인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우기면서 뻔질나게 《기념행사》놀음을 벌리고 있는가 하면 야스쿠니진자참배를 통하여 군국주의전범자들을 《영웅》으로 둔갑시키고 침략력사를 찬미하고있으며 헌법개정, 군비증강, 《자위대》의 해외파견 등 군국화책동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를 병탄하여 과거 저들이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일본의 변함없는 야망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일본이 그토록 공화국의 《위협》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 제재소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는것이며 미국과 야합하여 북침해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대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피로 얼룩진 과거의 죄행을 반성은커녕 계속 쌓아갈수록 일본이 같길은 파멸의 길뿐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거레는 3.1인민봉기의 피절은 합성소리를 언제나 잊지 않을것이며 과거에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조선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유린하고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춰온 일본의 죄악을 천백배로 받아낼것이다.

본사기자

조선의 관광

봄을 맞는 정방산

산마루들이 서로 잇닿아 정방형을 이루고있다하여 그 이름도 정방산,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위치하고있는 이곳으로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고있습니다.

정방산에는 오랜 세월 풍화작용을 받아 기묘하게 생긴 봉우리들과 해발높이 100m이상의 기암절벽들이 키돋움하며 솟아있고 많은 전설을 담고있는 약수터와 갖가지 꽃들과 함께 울창한 수림이 한데 어울려 참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펼쳐고있습니다.

산에는 소나무를 기본으로 하여 참나무, 돌배나무를 비롯한 키나무와 떨기나무들이 분포되어있으며 노루, 다람쥐, 꿩과 같은 동물들이 있어 유정한 정서를 더해줍니다.

정방산에는 유적과 유물들도 많습니다. 산마루에는 고려시기에 쌓은 이름난 정방산성이 있으며 성안에는 898년에 세워진 성불사가 있습니다.





향산천의 봄 본사기자 최원철

향산천에 봄이 왔다.
설경을 펼친 산들과 대조를 이루며 푸른 옷을 입은 나무들과 봄물을
한껏 먹은 버들가지들의 모습은 향산천의 풍치를 이채롭게 한다.
봄을 실고 흐르는 향산천의 유정한 물소리도 귀전에 들려오는듯
싶다.